Weekly 공감

2010.11.10 No.84
gonggam.korea.kr

G20 SEOUL SUMMIT 2010



세계가 서울로!
G20 Seoul 2010 p15~49

이명박 대통령 "서울 G20, 위기 넘어 다 함께 성장하는 계기로" p8~9

G20 정상들에게 선보일 명품 유물 20選 p10~13

G20 SEOUL SUMMIT 2010 경제위기 극복의 전환점 서울 G20 정상회의

사랑을 입력하세요.



인터넷 가상공간.

무심결에 키보드를 두드리고

무심결에 엔터를 치는 순간,

상대방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고운말, 아름다운말로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지성인이 됩시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대학생 광고 공모전 우수상작(인쇄광고).

Reader & Leade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G20, 대한민국 국격 드높일 좋은 기회



곽노성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지배체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G20 정상회의의 서울 유치는 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의 안정을 되찾고 주요국 간의 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G20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의미도 크지만 논의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의장국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세계 주요국 간의 협력은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자원고갈,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같은 국제공공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단결된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구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공재의 공급에는 서로가 혜택만 누리려 하고 책임은 피하려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급체계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의 G20 정상회의가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성과를 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에 그친 사안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모두가 '통화전쟁'을 예상했던 지난 10월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인 환율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 의제 간 교환을 통한 패키지 딜(Package Deal)로 성사시킴으로써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일단 합의 진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 성과에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우리 경제의 도약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주역으로서 국격(國格)을 드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세계 주요국,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우리나라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빈부격차 해소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인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주요 우방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세계는 현재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은 주요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과 자원 문제는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협력 분야에서도 그렇다. 경쟁 속에서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공유의 매개자로서 우리나라가 중추적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된다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모두가 우리의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능력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G



16

Contents

Weekly
2010.11.10
No.84(통권 185호)



표지 이야기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념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G20 정상 캐리커처
특별전' 출품작 모음.
각국 정상들의 특징을 살린
목원대 조원행 교수(한국만화가
협회 부회장)의 캐리커처들이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서울 G20 정상회의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

정성껏 준비해온 세계적인 큰 잔치 서울 G20 정상회의가 드디어 11월 11, 12일 열립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돼온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 무대의 변방이 아님을, 세계 경제계의 새로운 주역임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잔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맞이에 한마음으로 나설 때입니다. 우리의 반가운 길마중이 있어야 세계도 즐겁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으로 말입니다.


56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1.1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3호(11월 3일자) 기획특집 ‘농협, 農心 속으로!’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글로벌 시대, 새로운 농협 틀 만들고 발전 이루길

“박수를 보냅니다. 조직의 뿌리가 워낙 깊다 보니 스스로 가지치기가 어려운 농협이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기대를 갖게 합니다. 농협이 농산물 유통사업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화두입니다. 글로벌 개방 시대를 맞아 새로운 농협 틀을 만들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꼭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논의만 지속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_정수묵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도리를 지켰다고 봅니다. 당연히 농협은 농민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데 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전국 2백만명이 넘는 농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건전한 유통구조를 조성해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이는 자연히 농업경쟁력 증대로 이어질 겁니다.”_성낙수

농민 위한 조직 통해 한국농업 발전했으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농협이 그 설립 취지대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새로이 거듭나 한국농업의 발전을 주도했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_유재범

83호 ‘정책 뉴스 / 인허가 규제 걸림돌 없앤다’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여태껏 각종 인허가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규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행정조치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니 시간이 낭비되고, 부정과 비리도 성행했습니다. 이제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지나칠 정도로 금지하거나 불필요한 예외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하는 작업과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졌으면 합니다.”_박옥희

83호 ‘이 사람 / 모유 수유 홍보대사 신한미 판사’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신한미 판사의 모유 수유 기사를 보면서 흐뭇함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묻어났습니다. 저 또한 아내가 두 아이 모두 분유 한 통 먹이지 않고 모유만으로 키웠거든요. 아무튼 모유 이상 위대한 건 없더군요. 아이들은 아내의 모유만으로도 쑥쑥 성장해 이제는 미래의 동량으로 자라는 중이랍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_홍경석





알립니다

올겨울도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온(溫)맵시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온(溫)'과 모양새, 스타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가 합쳐진 말이다. 겨울철 불필요한 난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을 낮추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온맵시 코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 | 따뜻하고 실용적인 온맵시 패션 아이디어, 온맵시 소품 아이템을 활용한 코디법
참가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1월 14일까지
응모 방법 | 홈페이지 통해 이미지 촬영 사진과 제안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출. 1인 3개까지 복수 응모 가능
수상자 발표 | 11월 19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시상 내용 | 베스트상(1명) 30만원 상당 상품권, 뽐내기상(5명) 10만원 상당 상품권, 센스만점상(10명) 1만원 상당 상품권 수여 예정

그린스타트 ☎ 031-425-2284 greenstart.kr

화재 예방 위한 UCC·표어 찾아요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진, 포스터, 표어를 공모한다.

공모 부문 | ① UCC ② 사진 ③ 포스터 ④ 표어
공모 소재 | 불조심, 화재 예방, 생활 속의 안전 등
참가 대상 | 전 국민(개인당 1점만 가능)
접수 기간 | 11월 30일까지
응모 방법 | 참가 신청서와 함께 e메일(shin72@korea.kr), 방문 및 우편으로 작품 제출. 단, 작품 규격에 맞춰 제출할 것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3-1번지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공모전 담당자 앞
수상자 발표 | 12월 20일 홈페이지 게재 예정

소방방재청 ☎ 02-2100-5358 nema.go.kr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1월 17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두 나라 이상의 국가원수들이 마주 앉아 하는 회의. 서울 G20 OOOO.
3. 손자며느리.
4. G20 국가 중 하나로, 북아메리카 남서단에 위치한 나라. 현 대통령은 펠리페 칼데론. 페소화를 사용.
6. 남녀가 결혼을 위해 양가 당사자들끼리 직접 만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7. G20 국가 중 하나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 인구는 약 6천2백60만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약 4만2천7백47달러, 칸 영화제, 와인….

세 로

1.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대한민국 OO.
2. 함경북도 북부에 있는 시. 북쪽은 두만강에 접해 있죠.
3. 오는 손님을 맞아들이는 일.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OOOO 준비에 여념이 없다."
5.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컨벤션센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죠.
7. OO덕션, OO그램, OO페셔널. 프롤레타리아의 준말.

〈Weekly 공감〉 82호(10월 2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개혁 **3** 달동네 **5** 신비 **7** 일자리 **9** 재롱둥이
세로 **1** 혁신 **4** 동아리 **6** 비일비재 **8** 사이 **10** 둥실

〈Weekly 공감〉 82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미애·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김병국·광주 북구 중흥동
김현주·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김희선·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유정현·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스타 홍보대사 초대석

이번 호로 스타 홍보대사 초대석 연재를 마칩니다.

친환경 운전, 선진 운전문화의 첫걸음

친환경 운전이란 말을 다들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친환경 운전인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에 미친 저조차도 몇 년 전에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실천해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겠지' 하고 미뤄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전 세계를 통틀어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동차를 잘 활용하면 환경보호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친환경 운전입니다.

친환경 운전은 쉽게 말해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과 연료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매연을 줄이려면 자동차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연은 자동차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때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러스트 · 문지혜

자동차의 보닛을 자주 열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일정한 주기로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같은 소모품을 교환해주면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지고 연비와 승차감도 좋아져 기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엔진이 건강하니 매연 또한 줄어듭니다.

좋은 연비를 유지하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세요. 자동차가 무거우면 잘 달리기 힘들고, 빠르게 달리면 많은 연료가 듭니다. 자동차 트렁크나 뒷좌석에 불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지금 당장 치우십시오. 그리고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 무심코 오른발이 가속페달을 부서져라 밟고 있지는 않은지, 차를 세울 때 급브레이크를 밟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급가속과 급제동은 친환경 운전의 무서운 적입니다.

부드러운 가속은 운전자에게 편안한 승차감과 고연비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서서히 감속함으로써 브레이크 패드와 연료를 아끼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요령은 이 밖에도 많지만 앞서 일러드린 사항만이라도 잘 지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가지입니다.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급가속, 급제동, 급출발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차량의 연료 소모를 줄이는 친환경 운전이야말로 우리 주머니를 풍족하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며, 운전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글 · 이세창(환경부 친환경 운전 홍보대사)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이선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 이웃에 나눔을 베푸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은 아름답고 포근한 정이 남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업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할 때 사회는 건강해지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국격도 높아질 것입니다.

2. 지난번 배추값 폭등을 보면서 유통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앞으로 농민은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뀔 때 우리 농촌에 희망과 기쁨의 노래가 넘쳐날 것입니다.

3. 각종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고충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명연 대구 달서구 죽전동

1. '나눔, 사랑 있는 배움터에서 꿈 키워요' 기사를 읽고 도시 극빈층을 위한 무료 공부방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 싶었습니다. 사실 생활환경이 어려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갈 만한 장소가 없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야학 공부방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좋은 배움터가 되리라 봅니다.

2. 농협이 그동안 지나치게 금융 사업에 치중해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에 비춰 이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농협이 뒤늦게나마 농축산물 판매와 유통구조 개선에 관심을 갖고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니 기대가 큽니다.

3. 가을축제가 지자체별로 열리는데 내용이 유사하거나 겹쳐 특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역축제가 독특하고 고유한 축제로 정착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17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상상력을 채워주세요

20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고공모전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참가대상
- 제한없음(개인 및 단체)

공모부문
- 지면 및 인쇄광고(신문, 잡지)

공모주제 (택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비전(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과 미래 모습을 표현한 광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는 광고

공모일정
- 작품접수 : 11월 22(월) ~ 11월 26일(금) 5일간
- 수상작 발표 : 12월 7일(화) 예정

접수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 (홈페이지 참고)

시상내역
- 대 상(1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1편) : 상금 100만원
- 장 려 상(2편) : 상금 50만원

QR코드를 찍어주세요!

문의_공모전 운영 사무국 02)320-8830 **홈페이지**_www.cct.go.kr/contest **트위터**_twitter.com/cctcontest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

李대통령, G20 정상회의 의제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환율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개발 의제 등 G20 정상회의 의제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G20 반대 시위와 테러에 대한 대비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외신 기자 약 1백60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제와 남북문제, 테러 대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연설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긴급 구성한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공조로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세계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평화적,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G20 비즈니스 서밋, 프랑스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길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로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는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

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 의제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발 의제와 관련해 "개도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채택돼야 한다"며 G20 비즈니스 서밋이 내년 프랑스가 주최하는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길 기대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여유와 자신감을 보이며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관련 질문을 한 중국 기자에게 "중국은 환율에 관심 많죠?" 하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또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했던 "비행기를 안 띄운다"던 '협박성 농담'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자 이렇게 답변해 웃음을 선사했다.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은 상업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 공항만 폐쇄하면 못 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들 전부 자기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막기 힘듭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 관련 질문을 받자 "이 문제는 너무 크게 다루지 마시고 G20를 크게 다뤄 주기 바란다"고 해 기자단이 다시 한 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이다.

경주회의에서의 합의 과정을 설명한다면.

경주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 언론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환율문제가 보호무역주의를 부르고 결국 세계경제가 장기간 침체된다는 데 각국이 긴박한 인식을 함께했다. 또 우리가 제시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때문에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목표로 한 각종 테러에 대한 대비책은.

최근의 예멘 사고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고 인명피해가 없어 오늘부터 바로 복구에 들어간다. 알 카에다가 자기네 소행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불분명하며, G20 정상회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본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를 살리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과 세계의 어떠한 테러집단에 의한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회의기간 중 집회나 시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우리 국민이 역사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뜻을 함께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과거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강제적으로 자동차 2부제 등을 했으나 이제 대한민국은 매우 성숙한 사회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며 자율적인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위에 대비도 하고 있으나 한국노총 등 여러 단체에서 G20 정상회의에 대해 지지하고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개발 의제에 관해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는지. 남북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새로운 의제는 개도국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개발 의제다. G20 국가는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특히 개도국의 경제문제를 다뤄야 정당성,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다. 과거 원조를 받아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에 나눠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북한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 국제공조나 앞으로 취할 조치를 논의할 것인지.

중국 정부도 지난번 경주회의에서 환율 문제뿐 아니라 경상수지까지 포함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도입에 합의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FTA를 합의할 수 있을지.

이미 3년 전 한미 FTA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 FTA 체결은 세계경제에 자유무역의 메시지를 주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FTA 체결로 양국 모두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데 생각이 일치한다.

G20 정상회의 이후 부각될 개헌에 대한 입장은.

21세기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많다. 우리나라의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구역과 선거제도를 고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감정이 사라져야 지역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으며, 헌법 개정 문제는 국민과 여야가 맡아야 할 부분이다. 이 일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해야 한다.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 G

글 · 박경아 기자



1

명품 유물 명품 한국

G20 환영 만찬 뒤 명품 'M20' 공개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우리나라를 찾는 귀빈들을 환영하기 위해 '명품 문화재'들이 나섰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약 25만 점의 문화재 중에서 1만2천5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M20(Masterpiece 20)'이라는 이름으로 선정된 20건, 26점의 문화재가 20명의 참가국 정상들에게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선정된 유물들은 다른 시대와 이념,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인의 정신과 혼이 서려 있어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 국보인 '목조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닮은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예술의 나라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을 위해 선택된 백제 유물의 걸작 '백제금동대향로', 여왕의 나라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선덕여왕을 배출한 신라의 금관 등 G20 참가국과 인연이 있거나 이미지가 어울리는 작품들을 선정했다는 점도 작품 감상의 묘미다.

M20은 11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리셉션과 환영만찬이 끝난 후 각국 정상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만찬이 끝나면 이들 유물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지만, 박물관 측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일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장 유물 해설 표지에 'G20 손님맞이 문화재'라는 이름을 표기할 계획이다. G

글 · 이윤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 02-2077-9045~7, 9085 www.museum.go.kr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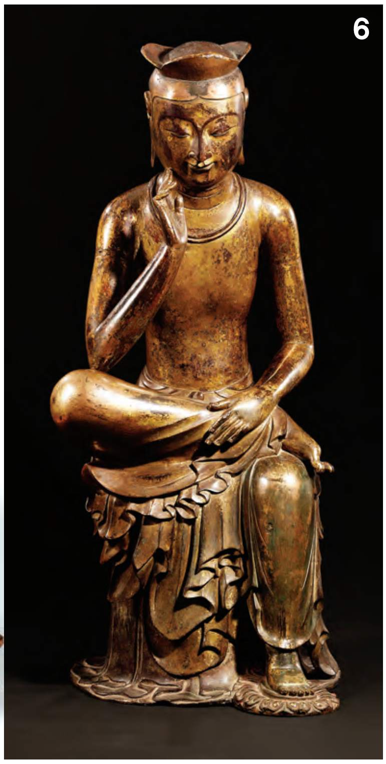


5

1 경천사 십층석탑 고려 충목왕 4년(1348)에 세워진 석탑. 1909년 무렵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반환된 것을 1960년에 경복궁 안에 재건했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놓았다(고려시대·14세기·국보 86호).
2 황남대총 황금유물 왕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품으로 장송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금관, 금허리띠, 관 꾸미개·삼국시대·5세기·국보 191, 192호).
3 끝없이 펼쳐진 강산 춘하추동 사계절의 대자연을 그려낸 이인문의 작품. '강산무진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다(조선시대·18세기).
4 백제금동대향로 왕실 의례에 사용된 향로로 불사를 상징하는 봉황이 새겨진 세계적인 걸작품이다(삼국시대·7세기·국보 287호).
5 감산사 미륵보살과 아미타불 단단한 화강암을 섬세하게 조각한 불상. 광배에는 '김지성이 부모의 은혜와 임금의 은덕을 기리고자 제작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통일신라시대·8세기·국보 81, 82호).
6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싯다르타의 모습에서 철학적, 종교적 깊이를 느낄 수 있다(삼국시대·7세기·국보 83호).
7 기마인물형 토기 주인과 그 앞에서 주인의 영혼을 안내하는 하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삼국시대·6세기·국보 91호).
8 감은사터 동탑 사리갖춤 통일신라시대 불교 공예품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리함과 사리병(통일신라시대·7세기·보물 1359호).



4



6



7



8





9

9 초조대장경, 금속활자 고려시대 사람들은 독일 구텐베르크(1397~1468)보다 2백 년 앞서 금속활자를 사용해 책을 인쇄하면서 세계 인쇄사에 큰 획을 그었다. 특히 고려 금속활자 실물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매우 적어 그 가치가 높다. 종이 인쇄물은 고려시대 목판본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다(고려시대 · 12세기 · 국보 272호).

10 간돌검 한국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석기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것 중 가장 크다(청동기시대 · 기원 전 6, 5세기).

11 동국대지도 조선과 동북3성의 일부를 아우르고 있는 대형 조선전도(조선시대 · 18세기 · 보물 1538호).

12 단원풍속화첩 모두 여덟 면으로 구성된 화첩으로 서민의 생업을 묘사하고 있다(조선시대 · 18세기 · 보물 527호).

13 송도기행첩 표암 강세황이 서양화풍을 접목해 송도 부근의 산과 계곡을 그린 걸작(조선시대 · 18세기).

10



11





12

13







14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신석기시대 · 기원 전 8000년대).
15 백자 끈무늬 병 하얀 바탕에 철화 안료로 그린 끈 무늬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술병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형태와 무늬에서 선조들의 풍류와 해학을 느낄 수 있다(조선시대 · 16세기 · 보물 1060호).
16 청자 연꽃넝쿨무늬 매병 매병의 둥근 어깨부터 굽에 이르는 부드러운 선은 고려청자만의 곡선미를 잘 보여준다. 몸체 전면에 음각된 연꽃과 넝쿨은 비췻빛 유약과 어울려 동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고려시대 · 12세기 · 국보 97호).
17 백자 매화대나무무늬 항아리 순수와 절제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백자는 유교 이념을 추구한 조선왕실과 사대부층에서 주로 애용했다(조선시대 · 16세기 · 국보 166호).
18 물가풍경무늬 정병 정병은 승려들이 마실 물을 담았던 휴대용기로, 불단에 깨끗한 물을 바치는 공양구로 사용되기도 했다(고려시대 · 12세기 · 국보 92호).
19 오리 모양 토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삼한시대 · 3세기).
20 기마인물도 벽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쌍영총 돌방무덤의 벽면 조각(삼국시대 · 5세기).






'아시아의 올림픽'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개막

비인기 종목에도 힘찬 박수를…

전 국민이 또 한 번 스포츠의 감동에 젖어들 때가 됐다. '아시아의 올림픽'인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이 11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개최국인 중국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이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한국은 41개 종목(크리켓 제외)에 9백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며, 남녀 구기 종목과 메달밭인 태권도, 양궁, 레슬링, 사격, 유도 등 효자 종목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따내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이후 4회 연속 종합 순위 2위에 도전한다.

여자축구 U-20·U-17, 세계 재패 재현 기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장미란, 박태환 등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총출동해 어느 대회보다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미지를 올해 단숨에 털어버린 여자축구도 U-20 월드컵 3위, U-17 월드컵 세계 제패의 신화를 성인 무대를 통해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06년 도하 대회에서 프로 최고의 스타들을 동원하고도 대만, 일본에 무릎을 꿇은 야구와 중동 심판들의 편파 판정과 텃세에 밀려 떼어 놓은 당상이었던 금메달을 놓친 남자핸드볼의 자존심 회복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수영의 박태환에 이어 육상에서도 신예 김국영 등이 수십 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한국 육상계의 희망을 쏘아올릴지 주목해볼 만하다. G

글 · 유재영 기자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경기일정

11월	7일(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금메달 합계
개회식																						
수영 경영							6	6	7	7	6	6										38
다이빙																2	2	2	2	2		10
싱크로나이즈드													1	1	1							3
수구											1								1			2
양궁															1	1	1	1				4
육상															6	6	8	4	11	10	2	47
배드민턴									2				1	2	2							7
야구													1									1
농구																			1	1		2
당구								2	2	1	1	2	1	1								10
볼링										2		2			2	4		2				12
복싱																			6	7		13
카누·카약 스프린트																			6	6		12
카누·카약 슬라롬								2		2												4
체스										2										2		4
바둑																1				2		3
장기													2									2
크리켓													1							1		2
사이클 트랙							1	3		2	4											10
로드														2		1	1					4
산악자전거												2										2
BMX													2									2
댄스스포츠							5	5														10
드래곤 보트												2	2	2								6
승마								1			1			2		1		1				6
펜싱												2	2	2	2	2	2					12
축구																		1	1			2
골프														4								4
체조 기계체조							1	1	2	5	5											14
리듬체조																			1	1		2
트램폴린																2						2
핸드볼																				2		2
하키																		1	1			2
유도							4	4	4	4												16
카바디																				2		2
가라데																		5	4	4		13
근대5종																	2	2				4
롤러스포츠																	4	2		3		9
조정												7	7									14
럭비																	2					2
요트														6	8							14
세팍타크로														2				2			2	6
사격							6	4	8	4	6	4	4		4		2	2				44
소프트볼																				1		1
스쿼시															2				2			4
탁구										2			3	2								7
태권도											4	4	4	4								16
테니스										2						3	2					7
정구								2	1		2		2									7
철인3종							1	1														2
배구																				1	1	2
비치발리볼																	1	1				2
역도							2	2	2	2	2	2	3									15
레슬링															3	3	3	3	3	3		18
우슈							2	2	2	2	7											15
폐회식																						총 476개
11월	7일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자료/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 예선 또는 토너먼트 · 00 00 당일 금메달 수 · 연합뉴스



기 획 특 집

서울 G20 정상회의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

정성껏 준비해온 세계적인 큰 잔치 서울 G20 정상회의가
드디어 11월 11, 12일 열립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돼온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 무대의
변방이 아님을, 세계 경제계의 새로운 주역임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잔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맞이에 한마음으로 나설 때입니다.
우리의 반가운 길마중이 있어야 세계도 즐겁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으로 말입니다.



서울, 세계경제 중심에 서다

최상위 경제협의체 '규칙 제정자'로 국가브랜드 높일 기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회의였던 G20 정상회의는 현재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명실공히 세계 최상위 경제협의체다. 이러한 G20 정상회의 유치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위상이 달라지게 만들고 있다.

'The G20 Seoul Summit 2010', 서울 G20 정상회의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을 슬로건으로 내건 서울 G20 정상회의가 11월 11, 12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가 결정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G20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12월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G8(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모이면서 출범했다.

G20 정상회의는 지구촌 미래를 좌우하는 모임

2008년 9월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지자 G20는 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그해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를 열면서 '정상회의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로비 LCD 모니터에 비친 G20 정상회의 참가국 국기들이 선명하다. 유럽연합(EU)을 제외한 G20 회원국 국기와 초청받은 비회원 5국의 국기들이다.

G20의 부상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세계는 G7(혹은 러시아를 포함한 G8)의 '선진국 이너서클'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 이너서클'이었던 G7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금융시장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엔(1백92개 회원국)은 다수의 회원국 운영체제여서 그리 효율적이지 않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다수 참여한 G20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G20는 숫자로 놓고 볼 때 유엔 회원국의 10퍼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G20 국가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는 사실상 지구촌의 미래를 좌우하는 모임인 셈이다.

초기에는 운영체제가 안정적이지 못해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2009년 4월)까지는 다음 정상회의 개최지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했다.

제3차 회의인 미국 피츠버그 회의 때에는 차기 정상회의를 캐나다, 한국, 프랑스(2011년 11월)에서 순차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올해까지 1년에 2차례도 열렸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한 차례씩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됐다.


연합

G20의 이모저모

G20란
- 유엔 1백92개 회원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의 모임
- G8(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 아시아·대양주(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유럽(터키, EU 의장국) +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G20의 경제 규모
-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51조 달러)
- 전 세계 무역량의 71%(17조5천억 달러)
-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43억명·이상 2008년 통계)
-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81%(2009년 9월·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제외한 통계)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등 2명을 포함한 G20 정상 21명, 초청국 정상 5명, 7개 국제기구 대표 등 33명의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서울로 온다.

이들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은 약 4천명, 이를 취재할 기자단만 11월 4일 현재 4천2백38명(외신기자 1천6백60명)이 등록했다.

각국 정상들 가운데 배우자를 동반한 정상도 중국 등 15개국에 국제기구 2명 등 모두 17명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로 얻는 효과는 막대하다. 1차적으로 회의 참가자 등 1만5천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쓰는 돈으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직간접 파급효과 31조3천억원 추정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간접적인 이득이 더 크다.

일단 이번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경우 국제무대 리더십에서 한국이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G20 비즈니스 서밋까지 G20 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격(國格)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직접적인 효과를 2천6백67억원으로, 간접효과를 포함한 파급효과는 약 3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의 파급효과가 24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위인 국가브랜드 순위가 2, 3단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환율·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7개 의제 논의

합의 사항은 12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로 발표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어 지구촌 좌장 역할을 맡게 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7개 분야의 의제가 다뤄진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중을 두고 있는 주요 의제는 환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의제 등 4가지다.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각국의 의견을 조율해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로이터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된 뒤 우리 주도로 의제를 신설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왔다.

"우리는 의장 역할을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를 좌우할 의제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을 맡게 된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일 제51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의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 때 2만여 개 기업이 부도가 나고 1백여 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아픔을 겪었다"며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돼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에 고기 잡는 법 가르쳐줘야"

개발 의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좀 더 공정한 세계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

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를 포함해 모두 7개 의제가 논의된다. 이들 의제는 크게 그동안 네 차례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존 의제와 G20가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한 신설 의제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의제는 ▲세계경제와 G20 프레임워크(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에너지·반부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통화정책을 논하는 G20 프레임워크 의제로 협의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우리나라가 새로 제시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비즈니스 서밋이다.

G20 프레임워크 의제로 환율 문제 협의

이 대통령은 의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번 G20 정상회의 이전에도 G20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개방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이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미 G20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온 우리나라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제5차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된 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셰르파(실무자) 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등 수많은 실무회의를 열어 여러 나라의 의견을 조정해왔다.

또 회원국 정부는 물론, IMF를 위시한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G20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말 IMF의 탄력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글로벌 금융안전망 1단계 합의 성과를 거뒀다. 또 10월에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심각해진 환율전쟁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는 나라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합의를 어겼을 때 명확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적 합의를 어겼을 때 다른 회원국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는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계의 '실세'로 부상한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 관한 논의와 합의 사항들은 11월 12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성명서)'에 담겨 발표된다. G

글·박경아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 및 추진 현황

분류	의제 항목	내용	서울 G20 정상회의 논의 내용
기존 의제	세계경제 및 G20 프레임워크(Framework·국제 협력체계)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 위한 정책 공조	•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개발 등에 대한 개별국가별 정책 약속 담긴 종합액션플랜 마련해 발표 • 환율 논쟁에 대한 G20 공조 방향 합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선진국 위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지배구조 개선	•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지난 10월) 합의를 바탕으로 IMF 쿼터 및 이사회 개혁 마무리 • 향후 IMF의 임무 및 역할 논의
	금융규제 개혁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규제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	•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과 금융기관(SIFI) 규제방안 채택 •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 논의
	무역·에너지·반부패	보호무역 저지, 에너지 가격변동성 완화 등 반부패 실무그룹 설립	•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전 논의 • 화석연료 보조금 개선계획 점검 • 반부패 실무그룹이 논의한 행동계획 채택 전망
한국 주도 의제	개발	비회원국인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지원	•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 위한 개발 의제 추진 방향과 원칙 제시 •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9개 핵심 분야의 다년간 행동계획 채택 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위험성에 대응	•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개선(지난 8월) 등 그간의 성과 평가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위한 추가 대안 논의
	비즈니스 서밋	G20 정상회의에 민간 목소리 반영	•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분야 12개 소주제 보고서 작성 • 비즈니스 서밋의 권고 사항 논의

“어떤 나라 누가누가 오나”

G20 정상회의 참가국·지도자 이모저모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쏠린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20개국과 그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폈다.(국가명 알파벳 순·EU는 제외)



대한민국 이명박(69) 대통령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규모 15위권으로 성장해왔다. 지난해 11월 OECD 국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첫 국가가 됐다. 지난해 아시아 최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누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한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12년 후인 36세에 최고경영자(CEO)가 돼 ‘샐러리맨 신화’를 이뤄냈다. 제14, 15대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거쳤다. 취미는 테니스와 수영. 〈신화는 없다〉 〈어머니〉 등의 저서를 펴냈다.

●●●

인구 4천9백77만3천1백45명 **수도** 서울

면적 22만1천3백36(남한 10만32)㎢ **GDP** 8천3백25억 달러

1인당 GDP 1만6천8백60달러 **정부 형태** 대통령제



호주 줄리아 길러드(49) 총리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 금리를 인상해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했다. 덕분에 재래시장의 물가가 안정되고 OECD 국가로서는 최고 수준인 2.5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호주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첫 이민자 출신 총리로 취임했다. 멜버른대 재학 시절 호주학생연합(ANU) 대표를 지냈고 200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부총리 겸 교육·고용·노사관계부 장관에 발탁됐다.

●●●

인구 2천2백16만명 **수도** 캔버라

면적 7백68만㎢(한반도의 35배) **GDP** 9천8백20억 달러

1인당 GDP 4만6천2백30달러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의 내각책임제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57) 대통령



‘탱고의 나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에서도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올해로 독립 2백 주년을 맞은 아르헨티나는 올해 들어 브라질의 높은 성장세와 낮은 수준의 금리,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7년 12월 집권했다. 세계 최초의 부부 대통령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 10월 말 심장마비로 사망한 전임 대통령인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에게서 대권을 이어받아 세계 최초 부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

인구 4천90만명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면적 2백79만㎢(한반도의 12배) **GDP** 3천87억 달러

1인당 GDP 7천6백90달러 **정부 형태** 대통령제(4년, 연임 가능)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65) 대통령



브라질의 GDP는 세계 8위다. 1970년대 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멕시코와 함께 35개국 중남미 국가 중 맹주로 꼽힌다. 아마존 산림을 포함한 풍부한 자원부국이자 세계 최강의 축구 강국으로도 유명하다.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3전4기 도전 끝에 2003년 1월 1일 3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06년엔 재선에 성공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기아 퇴치에 역점을 두고 브라질 사회보장제도를 수정했다. 월드컵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유치했다. 10월 31일엔 그의 비서실장이자 후임자였던 지우마 호세프 당선자가 브라질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때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

인구 1억9천1백25만명 **수도** 브라질리아

면적 8백51만㎢(한반도의 37배) **GDP** 1조5천7백34억 달러

1인당 GDP 8천94달러 **정부 형태** 대통령제(4년, 1차 연임 가능)

캐나다 스티븐 하퍼(51) 총리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 개최국이다. 지난해 12월 스티븐 하퍼 총리가 공식 방한했으며, 올해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입헌군주국인 캐나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가원수다. 영국 여왕을 대신해 현재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이 부임해 있다. 정부 수반은 2006년 2월 취임한 하퍼 총리가 맡고 있다. 하퍼 총리는 1993년 개혁당 소속으로 캘거리에서 연방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

인구 3천3백70만명 **수도** 오타와
면적 9백97만㎢(한반도의 45배) **GDP** 1조3천3백64억 달러
1인당 GDP 3만9천6백60달러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55) 대통령



2011년에 열릴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G8에 신흥경제대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창설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2008년 유엔 연설은 G20 정상회의의 초석이 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5월 16일 2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전후 세대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자 이민 2세(헝가리) 출신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다.

●●●

인구 6천2백60만명 **수도** 파리
면적 55만1천㎢(한반도의 2.5배) **GDP** 2조6천7백59억 달러
1인당 GDP 4만2천7백47달러 **정부 형태** 대통령제(5년 임기)

인도 만모한 싱(78) 총리



브릭스(BRICs) 국가 중 하나로 최근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 대변될 만큼 IT산업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헌법에 명기한 공식 언어가 22종에 이르며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만모한 싱(78) 총리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비(非)힌두교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2004년 5월 22일 17대 총리에 취임했다.

●●●

인구 11억6천만명 **수도** 뉴델리
면적 3백28만㎢(한반도의 15배) **GDP** 1조2천8백10억 달러
1인당 GDP 1천1백 달러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중국 후진타오(68) 국가주석



약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등장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간쑤성 수력발전소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3월 4대 국가주석, 2004년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올랐다. 취미는 노래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홍콩 반환 10주년 행사장에서는 류더화(劉德華)의 '중국인'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

인구 13억4천6백만명 **수도** 베이징
면적 9백60만㎢(한반도의 44배) **GDP** 4조9천90억 달러
1인당 GDP 3천6백80달러 **정부 형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국가

독일 앙겔라 메르켈(56) 총리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분단됐던 독일은 1990년 통일을 이뤄냈다.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 선진국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출생 후 곧바로 옛 동독으로 이주했다. 2005년 11월 22일 8대 총리로 취임해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연소 총리다. 지난해 총선에서 기민당이 승리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

인구 8천2백13만명 **수도** 베를린
면적 35만6천㎢(한반도의 1.6배) **GDP** 3조3천5백27억 달러
1인당 GDP 4만8백75달러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61) 대통령



동남아시아에 자리한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 2004년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

인도네시아 첫 직선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물리치고 6대 대통령직에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4퍼센트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

인구 2억3천만명 **수도** 자카르타
면적 1백90만㎢(한반도의 9배) **GDP** 5천3백94억 달러
1인당 GDP 2천3백29달러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3) 총리



세계적 패션 중심지로 유명한 밀라노를 비롯해 토리노, 제노바 등이 이탈리아 경제의 주요 도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2009년 GDP 규모는 세계 7위이자 금 보유량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알려졌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008년 30대 총리로 취임해 1994년과 200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총리직을 맡고 있다.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그룹인 메디아셋의 소유주이자 AC밀란의 구단주로 이탈리아 최대 출판사와 은행, 영화 및 홈비디오 배급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

인구 5천8백12만명 **수도** 로마

면적 30만1천㎢(한반도의 1.3배) **GDP** 2조1백83억 달러

1인당 GDP 3만5천4백35달러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멕시코 펠리페 칼데론(48) 대통령



삼권분립제와 연방제를 기본으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통해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2006년 취임했다. 원유 수출에 편중된 멕시코의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매일 오전 7시 대통령궁 인근 공원에서 25분간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유명하다.

●●●

인구 1억1백12만명 **수도** 멕시코시티

면적 1백96만㎢(한반도의 9배) **GDP** 8천7백49억 달러

1인당 GDP 7천8백70달러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6년, 단임)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5) 대통령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석유 매장량 7위 등 에너지 부국이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8년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러시아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복한 집안 출신 엘리트로 같은 지역, 학교 출신인 푸틴 전 대통령이 정치적 후원자다.

●●●

인구 1억4천2백만명 **수도** 모스크바

면적 1천7백8만㎢(한반도의 78배) **GDP** 1조2천2백92억 달러

1인당 GDP 8천6백93달러 **정부 형태** 대통령제(4년, 중임 가능)

일본 간 나오토(64) 총리



1965년 우리나라와 국교 정상화 이후 꾸준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이웃 국가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2위 교역 상대국이자 투자국이며 아시아에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다. G20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 20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11월 5일과 6일 열렸다.

지난해 6월 집권한 간 나오토 총리는 재수 끝에 도쿄대에, 세 번 고배 끝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국회의원도 3차례 낙선한 뒤 당선돼 집념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총리들과 달리 간 나오토 총리는 평범한 서민 출신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구 1억2천7백56만명 **수도** 도쿄

면적 38만㎢(한반도의 1.7배) **GDP** 5조6백77억 달러

1인당 GDP 3만9천9백3달러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G20 SEOUL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86) 국왕



아라비아 반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절대군주제 국가다. 국왕은 왕인 동시에 종교상의 수장이며 이슬람 원리주의를 건국의 기초 이념으로 하고 있다.

전임 파드 국왕의 갑작스런 서거로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국왕은 2005년 8월 즉위했다. 2008년 〈포브스〉지의 발표에 따르면 총재산이 약 25조원으로 알려졌으며 G20 정상 중 최고 부자다.

모든 축제나 휴일은 이슬람교와 관계돼 있다. 한 달간 해 뜬 후부터 해질 때까지 단식을 행하는 '라마단'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추정 매장량만 2천6백42억 배럴에 달하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다.

●●●

인구 2천5백52만명 **수도** 리야드 **면적** 2백15만㎢(한반도의 10배)

GDP 3천6백92억 달러 **1인당 GDP** 1만2천8백64달러

정부 형태 이슬람 군주정(정교일치의 국왕 중심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68) 대통령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다. 경제 규모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소외됐으나 1994년 민주선거를 통해 흑백 통합정부를 수립한 이후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흑인 차별에 맞선 무장항쟁으로 오랜 기간 투옥됐다. 지난해 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취임 연설에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줄루족 출신으로 다섯 번 결혼해 현재 3명의 부인을 두고 있다.

●●●

인구 4천9백5만명 **수도** 행정수도(프리토리아), 입법수도(케이프타운)
면적 1백21만㎢(한반도의 5.5배) **GDP** 2천8백72억 달러
1인당 GDP 5천8백24달러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내각책임제 가미)

SUMMIT 2010

미국 버락 오바마(49) 대통령



50개주로 이뤄진 대통령 중심제 연방공화국이다. 이미 두 차례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각지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모여 구성된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미국 문화산업은 다원적인 문화 배경과 거대 자본에 기반을 둬 전 세계 대중문화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월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같은 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와이 푸나호우 고교 재학시절 농구선수로 뛰었고 지난 1월 전미대학농구선수권대회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해설가로 나서기도 했다.

●●●

인구 3억7백21만명 **수도** 워싱턴D.C.
면적 9백82만㎢(한반도의 45배) **GDP** 14조2천5백63억 달러
1인당 GDP 4만6천4백70달러 **정부 형태**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56) 총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해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며,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당수로 2003년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다. 1994년부터 4년간 이스탄불 시장을 지낼 때 상수도,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

인구 7천2백56만명 **수도** 앙카라
면적 77만9천㎢(한반도의 3.5배) **GDP** 6천1백53억 달러
1인당 GDP 8천7백23달러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대통령제 가미)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44) 총리



금융, 법률 등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을 지닌 영국은 미국에 이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세계 제2위다. 또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과 더불어 세계 2대 금융시장이다. 지난해 4월 G20 런던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귀족 학교인 명문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엘리트다. 2005년 39세에 보수당 당수에 오른 뒤 지난 5월 실시된 총선에서 73대 총리직에 올라 영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됐다.

●●●

인구 6천1백80만명 **수도** 런던
면적 24만4천㎢(한반도의 1.1배) **GDP** 2조1천8백36억 달러
1인당 GDP 3만5천3백34달러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유럽연합 헤르만 반롬퓌이(63) 대통령



유럽연합(EU)은 27개국으로 이뤄진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다. 1950년대 6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는 1967년 3개 기구를 통합한 유럽공동체(EC)를 거쳐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유럽연합이 됐다.

헤르만 반롬퓌이 대통령은 2008년 12월 49대 벨기에 총리가 됐고 올해 1월 1일 초대 EU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G 글·김민지 기자

국가정보 참고·외교통상부 mofat.go.kr
서울 G20 정상회의 seoulsummit.kr
GDP 참고·2010 세계국가편람(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편찬) 2009년도 추정치

비즈니스 서밋에 정상 참석 쇄도

글로벌 CEO 120명 · 정상 12명 참가키로

G20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참석자 가운데 비즈니스 서밋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이 속속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사무국에는 참가 신청이 마감됐는데도 글로벌 CEO들의 참석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의 G20 정상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직전에 개최되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참석을 확정했다.

G20 사상 처음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은 11월 10, 1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적인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어젠다(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 12개 소주제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11월 4일 현재 비즈니스 서밋 참가가 확정된 글로벌 CEO는 G20 국가 기업인을 중심으로 1백20명이다.

4개 어젠다의 세부 12개 소주제별 보고서 작성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사무국은 "비즈니스 서밋 참가 신청이 마감된 뒤에도 글로벌 CEO들의 문의가 잇따라 비즈니스 서밋 회의 당일에는 참가 CEO 수가 1백23명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까지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확정한 정상은 앙겔라 메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인 11월 10,1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릴 비즈니스 서밋 회의장의 가상 모습.

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 호세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호세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11명이다.

또한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정상의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12명 정도의 정상 참석이 예상되고 있다.

비즈니스 서밋 개막총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오찬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 폐막총회에는 캐머런 영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은 소주제별로 30여 명의 글로벌 기업인과 함께 G20 관련 경제 현안에 대해 60분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논의하게 될 4개 의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 이슈'다. 이 가운데 무역과 금융은 거시경제의 틀로서 G20 정상회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녹색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핵심 의제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큰 기업인들이 성장에 대한 목소리를 결집해 보고서로 정리하는 최초의 기회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정부와 기업 간 눈높이를 좁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대통령·국내 CEO들은 '열공' 중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의 특징은 회의석상에서 직접 '리더'들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G20 열공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15명의 국내 재계 대표들도 산하 경제연구소의 '특별 과외'를 받는 등 토론을 위한 최종 점검 태세에 돌입했다. 한국 기업 중 유일한 컨비너(Convener·회의주재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녹색성장 라운드테이블의 신재생에너지 소주제를 이끌며 해외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사전 인맥을 쌓는 등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 회장은 워킹그룹 참가 기업들과 수차례 컨퍼런스 콜, 비디오 컨퍼런스 등을 갖고 기업 간 의견 조율을 하며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10월 중순에는 같은 소주제 그룹에 배정된 외국 CEO 대리인 전원을 서울로 초청해 의제 조율과 인맥 쌓기를 하기도 했다.

인프라·자원개발 소그룹에 배정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할 회장 및 CEO 컨퍼런스 콜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은 최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G20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공항 입국수속을 돕기 위해 각 국가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이번 행사를 '비즈니스 창출 기회'로 보고 지난 10년간 에너지 회수 설비에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효율 향상에 앞장서온 포스코의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라운드테이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 분과 인프라·자원개발 소그룹에 참가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다년간의 국제 비즈니스 및 민간외교 경험을 살려 이번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촉진 및 펀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예정이다.

'학구파'인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녹색성장의 에너지 효율 소주제 보고서 작성작업을 통해 화학공학박사다운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경제경영연구소 소장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과 회의에서 발언할 내용 등을 치밀하게 준비 중이다.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은 녹색일자리 소그룹에 참가해 전문가 이상의 식견과 지식을 발휘할 전망이며, 의사 출신인 박용현 두산 회장은 평소 개발도상국 의료환경 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높아 이번 보고서 작성 및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각별한 애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역시 내부 리서치센터의 의견을 수시로 참고해 출구전략과 세계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준비 중이다.

11일 환영 리셉션은 국립중앙박물관 12일 회의·만찬 등 모든 행사는 코엑스에서

1년여 동안 준비해온 서울 G20 정상회의가 빛을 발할 때가 왔다. 11월 10일 하루 먼저 열리는 G20 비즈니스 서밋을 시작으로 11,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와 정상 배우자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세계인을 놀라게 할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전 행사의 이모저모를 살폈다.

G20 참가국 정상, 정부 대표단 4천명, 취재진 4천명에 행사 관계자까지 합치면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참가자 규모는 최소 1만명을 웃돈다. 본격적인 일정은 11월 11, 12일 이틀간 진행되지만 사실상 10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으로 G20 참가국 정상의 전용기가 속속 도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실시된 수요조사를 토대로 서울 시내 12개 특급호텔에 배정된다. 호텔 숙박비는 정상요금 범위 안에서 참가국이 직접 지불한다.

G20 참가국 정상과 대표단,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서울에 도착해 숙소 배정을 완료하면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첫 행사는 11일 오후 6시에 시작되는 환영 리셉션과 7~9시에 진행되는 업무만찬. 여기에는 각국 정상 내외, 재무 장·차관, 셰르파 및 수행 외교장관 등 1백5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의 장(場)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첫날 공식행사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선정된 이유는 1박 2일의 짧은 공식 일정 속에서 각국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대표들은 행사장에 도착하는 대로 공식 환영식장인 으뜸홀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환영을 받게 된다. 기념촬영을 한 뒤 환영 리셉션장인 '역사의 길'로 입장하면 우리나라 최고 문화재 11점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정보기술(IT)을 알리는 태블릿PC 갤럭시탭도 설치해 8개국 주요 언어로 유물을 안내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코엑스 1층 미디어센터 근처에는 한국의 60년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 시설물이 설치된다.

참가국 정상·대표단 서울 시내 12개 특급호텔 배정

환영 리셉션이 끝나면 곧바로 업무만찬으로 이어진다. 업무만찬이란 이름은 식사 중에도 치열하게 회의가 진행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업무만찬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징성을 고려해 전시유물이 보존된 박물관 내 특별전시실에 마련된다. 환영 리셉션장과 마찬가지로 업무만찬장에도 우리 문화유산을 전시해 한국의 전통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일정을 마치면 각국 정상들은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 숙소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제공되는 의전 차량은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에쿠스 리무진. 정상들의 배우자나 국제기구 대표용 의전차량으로는 BMW 750Li, 아우디 A8, 크라이슬러 300C가 제공된다.

이튿날인 12일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이자 '서울 선언'이 발표되는 중요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모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행사장 조성, 문화행사, 컨벤션, 통역, 식음료 등 5개 부문 국내 전문가들을 구성해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2만2천1백 제곱미터 규모의 정상회의장인 코엑스 전시홀은 1층과 3층에 레드존(Redzone), 블루존(Bluezone), 옐로존(Yellowzone) 등 총 3개로 구성된다. 레드존인 정상회의장은 3층 D홀에 자리한다. 정상 라운지, 정상 업무오찬장 등이 있으며 대표단 사무실, 양자 회담장, 국별 브리핑룸 및 대표단 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첫날 행사가 진행된다. 환영 리셉션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오른쪽 사진)'에서 열린다. 이곳에선 우리나라 최고 문화재 11점을 만날 수 있다(위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이터링 공간은 블루존으로 3층 C홀에 위치한다. 옐로존은 미디어센터와 국제방송센터 등으로 1층 A홀과 B홀에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번 정상회의 의전 콘셉트를 '검소하면서 실용적인 회의'로 정했다. 각 행사장에 쓰인 기본 자재는 재활용을 전제로 조성했고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사용했다.

정상 라운지 및 정상 업무오찬장은 한국의 미(美)로 꾸며진다. 한지(韓紙), 화준(花罇·꽃무늬 항아리), 달항아리 등을 내부 장식에 활용했다. 정상회의장과 회의장 밖을 이어주는 우리나라 IT도 구현된다. 정상회의장 곳곳에 각종 안내표시를 하는 디지털 기기가 전시되고 IT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미디어 첨성대도 조성될 예정이다.

의전 서열은 그룹 간 취임 순서·기구 설립 연도 고려

이날 오전 세션이 오전 9시 정상회의장에서 진행되면 의장인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이 앉게 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의전 서열은 크게 주최국, 회원국, 초청국, 정상대리 참석국, 국제기구 순에 따르는 것으로 각 그룹 안에서는 취임 순서와 설립 연도 등이 고려된다. 회원국 중 국가원수 취임 순서에 따르면 2003년 1월 취임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순위이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그 뒤를 잇는다. 국제기구 가운데에서는 유엔이 1순위다.

오전 회의와 기념촬영을 마치면 참석자들은 낮 12시30분에 업무오찬을 갖고 바로 오후 회의에 들어간다. 오후 4시가 되면 이 대통령이 코엑스 1층 미디어센터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각국 정상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코엑스 안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고별만찬이 진행된다.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하루 더 체류하는 일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G20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11일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안건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3층 D홀에 위치한 정상회의장 모습.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국내외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2백여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리셉션, 특별만찬, 아리랑을 테마로 한 문화공연 행사가 준비된다.

G20 정상회의 행사 준비 중 특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먹을거리다.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환영 리셉션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오찬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회의가 우선인 만큼 외국 정상들에게 풀코스의 한식보다는 간단한 양식으로 제공된다. 식사를 겸한 회의 특성을 고려해 간편하게 먹으면서도 한국 음식문화의 수준을 느낄 수 있도록 상주 곶감을 먹여 키운 상주 한우, 다도해산 줄돔, 영덕대게 등 한국산 재료를 사용한다.

정상들과 함께 온 15개국 배우자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

정상들과 함께 온 중국 등 15개국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의 전통적 의식주를 테마로 이틀간 배우자 행사를 구성했다.

11일에 정상들과 리셉션장까지 동행한 배우자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리움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미술관 안에 마련된 장소에서 양식 풀코스로 마련된 저녁을 함께하며 미술관 관람도 즐길 예정이다.

다음 날 오전에는 서울의 궁궐 중 원형 보존이 가장 잘돼 있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배치가 뛰어난 창덕궁 후원을 방문한다. 이후 아직 공식적으로는 개관되지 않은, 한국 전통 가옥 10여 채로 이뤄진 한국가구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2천여 점의 전통 목가구와 꽃담, 창살무늬 등 한국 전통 주생활 건축 디자인과 실내장식을 살펴보며 한국 역사와 건축 등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장 관람을 마치면 전통 한식 오찬이 시작된다. 메인요리인 쇠고기를 얇게 저며 양념에 재웠다가 불에 굽는 너비아니 등 한국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마련돼 배우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한국 문화유산 체험으로 이뤄진 배우자 프로그램을 마치면 배우자들은 한국 음식문화와 요리법을 담은 한식 소개 책자를 전달받는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하루 전에 열리는 G20 비즈니스 서밋은 서울 광진구 쉐라톤워커힐호텔이 주무대다. 10일 밤 처음 열리는 리셉션과 만찬은 CEO들의 눈높이에 맞춰 음식, 와인 등을 글로벌 문화 관련 7인의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다. 만찬은 한식 퓨전요리로 전채요리, 생선요리, 육류요리, 디저트, 차와 커피 등 5개 코스로 마련되며 전복, 제주산 한라봉 등 한국 전통 재료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11일 분과별 토론이 열리는 회의장은 4개 주제에 따라 이색적으로 꾸며진다. ▲무역투자 분과는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 ▲금융분과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베이지 ▲녹색성장 분과는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상직하는 초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과는 따뜻함과 균형을 상징하는 주황색으로 구성된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 노혜령 홍보팀장은 "이곳에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1박2일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짧은 공식 일정 속에서 각국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첫날 공식 행사 장소로 지정됐다.

미디어센터,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장소

옐로존 미디어센터 11, 12일 24시간 운영… 외신기자 취재 지원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서울 G20 정상회의의 여러가지 소식을 전 세계에 발 빠르게 전해줄 기자들이 활동할 코엑스 1층 미디어센터 입구 전경.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33인의 정상과 정상급 인사들, 그리고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1백20여 글로벌 CEO들만 회의 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취재하는 각국 기자들 역시 뜨거운 취재 전쟁을 벌이게 된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옐로존'에서 운영되는 미디어센터는 비즈니스 서밋 개막 하루 전인 11월 9일 오전 9시 문을 열어 12일 자정까지 운영된다. 특히 G20 정상회의 기간인 11, 12일은 24시간 문을 열어 세계 각국 기자들의 취재를 지원하게 된다.

"코엑스에 설치된 미디어센터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김희범 홍보기획단장은 11월 4일 현재 준비위원회에 등록한 기자들이 4천2백38명, 외신기자만 62개국 1천6백60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상회의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의제 브리핑입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 시간대별로 의제 관련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김 단장은 미디어센터 내에서는 "기자나 방송 제작진이 굳이 G20 정상들이 회의를 하는 3층까지 올라가 취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원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센터 어디서나 고화질 첨단 LCD 모니터가 있어 회의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며, 미디어센터 등록 때 아이디카드와 함께 지급하는 수신기만 가지면 채널을 돌려 통역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미디어센터는 정상회의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미디어센터 내에 설치된 풀HD급 '미디어 월'에 4개의 에피소드로 된 13분짜리 한국 소개 영상물이 뜨게 될 겁니다. 1백 년 전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이 '희망 없는(hopeless)' 나라로 표현했던 한국이 '위기극복 유전자'를 바탕으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한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IT제품 시연장 및 14개 언어 통역요원 배치

이 밖에도 미디어센터에는 각종 IT제품 시연장과 14개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요원이 배치되어 기자들의 취재를 돕는다. 또 수천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미디어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의료상황에 대비해 심장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된다.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는 취재진 규모 면에서 역대 최고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얼마 전 유럽연합(EU) 이사회로부터 '렛츠 고' 캠페인송 등 한국의 정상회의 홍보에 감명 받았다는 e메일을 받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기조를 살려 우리나라를 더욱 긍정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정부는 국가 관문인 공항의 안전체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7일 서울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실시된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모습.

인천국제공항 'G20 VIP 모시기'에 만전

맞춤 의전·전용 관제석 운영 등 안전체계 유지로 불편 최소화

사랑의 성사 여부는 첫인상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과 귀빈들에게도 이런 속설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한국의 첫인상을 가늠하는 데 국가 관문인 공항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 이에 각 공항은 G20 정상회의의 개막을 앞두고 안전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며 글로벌 VIP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및 국제기구 관계자, 수행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취재진 등의 안전한 입국이 공항으로서는 최우선 과제다.

총 32개국 1천여 명의 귀빈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비행기 착륙 때부터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도록 인천공항과 서울공항, 김포공항에서 특별 의전이 이뤄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참가국 관계자들이 이용할 항공편은 총 49편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인도, 벨기에(유럽연합 의장국) 등 11개국 정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계획이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초청 비회원 5개국 정상도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유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7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인천공항으로 입국 예정인 G20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의 전용기와 특별기 등은 여객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진 '832번 주기장'으로 유도된다. 참가국 관계자들이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곧바로 밀착 경호가 이뤄지며, 이들은 일반 게이트가 아닌 'EG(Emergency Gate) 1초소'로 이동한다. EG1은 원래 강제출국자가 통과하는 초소지만 정상회의 기간에는 VIP 초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공항서부터 정상·관계자·글로벌 CEO 등에 특별 의전

입국 수속은 외교통상부 참사관과 서기관급으로 구성한 의전연락관(DLO·Delegation Liaison Officers)이 전담한다. 이 중 DLO-1은 각국 정상의 입국 수속을 담당하고, 외무고시 출신 외교안보연구원 연수생들로 조직된 DLO-2는 영부인을 전담한다. 여기에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인 DLO-3, DLO-4는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의 수속 업무에 나선다. 수속이 끝나는 대로 주차장으로 이동해 자동차편으로 숙소로 향한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민항기들은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는 46번 주기장으로 유도된

다. 이 주기장엔 비행기 출구에서 의전실로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더블 도어' 통로를 만들어 일반인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이 통로를 통과해 G20 전용 공간으로 개조된 인천공항 서쪽 귀빈실에서 입국 수속을 기다린다. 민항기를 타고 올 것으로 통보된 9개국 정상들도 국빈 전용 더블 도어를 통과해 입국 수속을 마친 뒤 곧바로 숙소로 향한다.

자가용 비행기와 전용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CEO들에게도 '맞춤 의전'이 펼쳐진다. 이들이 이용하는 비행기 역시 일반 여객기가 착륙하지 않는 계류장에 착륙한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의전실 직원이 계류장에서 탑승객들을 여객터미널 귀빈실로 안내하고 입국 수속을 돕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참가국 VIP들에 대한 의전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국토해양부, 법무부, 경찰청, 보안기관 등과 안전 시스템 구축 협조를 위해 11월 1일부터 G20특별지원대책반을 본격 가동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맞아 10월 18일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각국 정상들의 특별기에 대해 착륙에서 이륙까지의 지상조업을 책임진다.

항공 보안검색 강화, 보안등급 '심각'으로 상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만에 하나 있을 항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에 숙련된 관제사들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각국 정상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해선 전용 관제석을 별도로 운영해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항공기 착륙 과정이나 기체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위급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소방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합동으로 항공기 사고 및 광역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벌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11월 1일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인천공항을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정 장관은 특별히 짙은 안개 등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예비 공항 운영 등 우발 계획도 치밀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25일부터는 항공 분야 특별안전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11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소속 전문 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안전점검반이 인천공항을 이착륙하는 국적사 및 외항사 항공기에 대한 조종, 정비, 객실 안전, 운항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 보안검색도 강화됐다. 국토해양부는 공항 및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 및 김포, 김해, 청주, 제주공항의 항공 보안등급을 11월 4일부터 '주의(Yellow)' 등급에서 '경계(Orange)'로 한 단계 높였다.

11월 8일엔 '심각(Red)'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11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심각 등급은 국빈 방문 시 테러 가능성이 높거나 공항 및 항공기 테러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접수돼 대책이 필요한 경우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등급이다. 이 밖에도 지방공항은 심각 단계에 준해 보안 경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항시설 경비 강화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됐다. 특히 승객과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소요 시간이 늘었다. 자연히 항공기 탑승 수속 시간이 평소보다 더 걸리므로 해외로 출국하려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항에 나와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한영 홍보팀장은 "공항 종사자들에게 테러 대응 및 공항 보안의식 강화 교육을 시행해 보안체계에 대한 점검과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공항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유재영 기자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엔 공항의 보안등급이 최고 수준인 '심각' 등급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휴대물품과 항공화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된다.

아시아 허브공항 '인천공항'

환승 외국인 신원확인 강화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이 강화됐다. 인천공항이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하면서 환승 외국인 범죄자들의 이용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11월 1일부터 여행경로 분석을 30퍼센트(하루 2천5백명)로 확대하고, 불법 환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동남아발 항공노선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사전 승객정보 분석 시스템(APIS)을 통해 위·변조 여권 소지 및 불법 환승 여부도 정밀 심사한다.

이에 앞서 10월엔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과도 출입국 안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천공항, 나리타공항 등 양국 주요 공항에서 테러분자 입국 저지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11일 짝수 차, 12일 홀수 차 쉬게 해주세요

G20 정상회의 기간 서울지역 자율적 자동차 2부제 시행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들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경호안전통제단이 비상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했다.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도 G20 정상회의의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G20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 등 요인 경호와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해 육·해·공 입체작전에 들어갔다. 국가주요 기반시설과 행사장 주변 산악지역에 병력이 배치됐으며 해상에는 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공항 주변해역에서의 선박 검색·차단, 대잠 탐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중초계 및 방공포병 비상대기도 강화됐다.

또한 G20 정상회의 기간인 11월 11일(목)과 12일(금) 양일간 서울 전 지역에서 원활한 행사 진행과 교통 정체로 빚어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된다.

자율 2부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11일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을, 12일에는 짝수인 차량을 운행하면 된다.

특히 G20 정상들의 대거 이동에 따른 도로통제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정상회의 당일(11월 12일)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매년 9월 22일 실시해온 '승용차 없는 날' 행사(환경부 주관)를 올해는 11월 12일에 시행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자율적 자동차 2부제

시행 기간	11월 11(목), 12(금)일
대상 지역	서울시내 전 지역(타 지역 차량도 서울 진입 시 적용됨)
참여 대상	자가용 승용차, 비사업용 승합차 등
참여 내용	11일은 홀수번호, 12일은 짝수번호 차만 운행
교통 대책	버스, 지하철 증차 및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서울시 개인택시 운휴조 운행제한 해제
출근시간 조정	수도권 관공서 시차출근제(오전 10시) 시행
통학시간 조정	서울 4개 구(동작, 송파, 서초, 강남) 초중고교 등교시간 조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회원들이 11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승용차 2부제 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2일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실시

정부는 자동차 2부제와 '승용차 없는 날' 병행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공무원의 출근시간과 서울 4개 구 지역(동작, 송파, 서초, 강남) 초중고교 등교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국토해양부 김희국 제2차관은 "자율 자동차 2부제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교통문화를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승용차 2부제 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주평통 서울지역 25개구 협의회를 주축으로 자문위원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 등 3천5백여 명은 캠페인 첫날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서울시내 주요 교통 밀집지역에서 승용차 2부제 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 인터뷰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 태세 유지"

"서울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역대 어느 국제 행사보다도 경호·경비가 중요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만난 한민구(57)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국제 행사와 회의를 유치해 잘 치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를 위한 경호·경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한 경호·경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의 통제 아래 경호작전본부, 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 대테러안전본부, 소방방재본부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 맡고 있습니다.

군의 주요 임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왔습니까.

우리 군의 임무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육상, 해상, 공중에 대한 경호·경비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 태세는 3단계로 이뤄져 1단계 '탄력적 군사대비'로 계획을 보완하고 부대별 임무를 할당했습니다. 2단계는 '증강된 군사 대비'로, 지난 9월 1일 군작전본부를 열고 각종 시범 교육, 전술 토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실시했습니다.

군작전본부는 합참작전본부장이 지휘를 맡고 있으며 육상은 수도방위사령관, 해상은 2함대사령관, 공중은 공중작전사령관을 경호경비 책임관으로 임명해 민관군 통합훈련을 해왔습니다.

군사대비 태세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어떻게 강화됩니까.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3단계인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U2기 등 입체적인 감시망을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며 행사장과 주요 이동로 구간의 군 책임지역에 병력을 배치해 완벽한 경호·경비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영철 기자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을 꼽는다면.

지난 6월 열린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는 반(反)세계화를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대규모 폭력시위로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그동안 여러 위협에 대비해왔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킨 북한이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비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8개 유형을 경계하고 있으며,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공격 등 행사 테러 9개 유형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우리 국민과 수고하는 군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서울을 중심으로 경호·경비에 만전을 기하다 보면 국민 여러분께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일조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병들도 긍지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례 육해공군의 경호·경비작전 부대를 방문해보니 모두 잘 준비하고 있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Welcome, 歡迎, Bienvenue! 서울"

옥외간판 정비·공중화장실 개선 등 자치구들 손님맞이 '구슬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손님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외국인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한편으론 축제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 여기저기서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물론 각 자치구도 저마다 단장에 한창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분주한 곳은 역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강남구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말처럼 강남구가 G20 정상회의에 들이는 정성은 남다르다.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와 31개 관광호텔 등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지만 길거리 먼지와 쓰레기, 난립한 간판, 일정치 않은 도로 환경, 하수도 악취 등 기초질서 분야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강남구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남구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국제도시'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코엑스와 호텔 주변, 역삼동 국기원 일대, 압구정동 로데오길 일대,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하수구 악취 저감 시스템을 구축해 악취를 감소시켰다.

코엑스 주변, 통합 디자인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외관 개선을 위해 호텔과 회의장 주변 간선도로 인근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옥외간판을 정비하고 구청에서 제시한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해 도시 미관을 한층 좋게 했다. 이면도로변 전주 및 통신주에 어지럽게 설치된 통신선을 정비한 점도 이번 외관 개선의 성과로 꼽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달빛무지개분수(반포지구), 월드컵분수(선유도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뚝섬), 물빛광장분수·수상분수(여의도공원), 거울분수(난지공원) 등 7개 분수의 가동일을 예정보다 2주 긴 11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한강사업본부



강남구청



분수 공연 전 신청 사연을 소개해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달빛무지개분수의 '음악연출'은 분수 가동 연장기간에도 계속된다.
강남구는 구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옥외간판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통일해 도시 미관을 살렸다(오른쪽).

코엑스 주변 공중화장실과 음식점, 상가건물 화장실의 시설도 개선하고 개방화장실을 1백15개소에서 2백50개소로 늘렸다. 이 밖에도 경기고등학교 옹벽을 전통 담으로 대체하고 행사장 인근의 건축 공사장 가림막 개선 등을 통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코엑스 주변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한 준비도 이미 끝났다. 아셈로 6백80미터와 삼성로동 47길 2백40미터 구간이 그 대상으로, 불필요한 시설물을 없애고 세련된 통합 디자인으로 깔끔한 거리를 조성했다.

먼저 거리 미관을 해치던 신호등과 가로등, 보행등, 도로명 표지판 등을 '통합지주' 하나로 합쳤다. 심플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통합지주는 기존의 스틸 재질 대신 잔돌과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자연 석재 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식이 없어 감전사고 예방과 전단지 부착 방지 효과가 있다.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찾고 싶은 G20 정상회의 참가자들이라면 양재천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강남구는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양재천을 찾아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도록 양재천 산책로 7.4킬로미터를 정비했다. 또, 호텔과 양재천 간 셔틀버스 운행으로 이동의 편리를 도모했다.

한강 분수 가동 연장·세계등축제로 '한국의 美 세계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코엑스와 마주하고 있는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회의 참가자들의 이동 노선이 될 천호대로 주변에 녹지대와 화단을 만들고 보도와 보행자 안전펜스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등에 화분을 매달아 꽃길을 조성한다. 꽃길 조성구간은 예술의전당~서울성모병원 2.5킬로미터와 사당역~예술의전당 3킬로미터 등 주요 간선도로 7곳으로, 총 6백개의 화분을 가로등에 달아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화사한 이미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강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에게 전할 기회도 늘어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G20 정상회의를 맞이해 당초 지난 10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한강공원 분수의 가동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반포지구의 달빛무지개분수, 선유도공원의 월드컵분수, 뚝섬의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여의도공원의 물빛광장분수, 수상분수 그리고 난지공원의 거울분수 등 7개 분수가 만들어내는 경관을 11월 14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10 서울세계등축제'에서 선보인 'G20 성공기원등'도 눈길을 끈다. 청계광장과 모전교 사이에 전시된 이 등은 가로 15미터, 세로 3미터의 규모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형등이다.

피사의 사탑과 빅벤, 피라미드 등 세계문화유산도 등불축제를 통해 한국 전통 등(燈)으로 만날 수 있다. 투명한 수면에 반사된 전통 등의 조명이 빚어내는 형형색색 등불의 향연은 청계천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추억이 될 것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한국을 접하는 장소인 인천공항도 G20 정상회의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G20 정상회의의 상징이기도 한 청사초롱 1천 개를 공항 가로등에 매달아놓은 것이다.

공항뿐 아니라 남산골 한옥마을 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에는 줄에 엮인 등불이 설치됐다. 1만5천여 건의 응모작이 몰린 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사초롱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았다"라는 디자이너 장대영 씨의 설명처럼 서울 거리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다.

거리 단장에, 청사초롱 불빛에 담은 우리의 마음이 외국인 손님들에게도 전달돼 회의 본연의 성과에 더해 한국의 멋스럽고 따스한 문화도 함께 알려질 것이다. G 글·이윤진 기자

동아DB

최첨단 친환경 '그린카'가 달린다

G20 정상회의 기간 친환경 차 53대 운행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53대의 최첨단 친환경 '그린카'가 행사장과 주변 시설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내외신 기자 취재 지원차량으로 운행된다. 세계에 우리의 그린카 기술을 알리고, 국내에 친환경 차를 확대 보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최첨단 친환경 자동차들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과 방문단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7개 모델 53대의 '그린카'가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 및 업무 지원차량 등으로 운행된다.

서울시와 기업들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그린카 운행에는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 한국화이바 등에서 올해 개발한 전기차 38대, 수소연료전지차 15대가 선보인다.

전기차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블루온' 10대, 전기버스 '일렉시티' 4대,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전기차' 10대, 한국화이바와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상용 전기버스 '이프리머스' 10대, 브이이엔에스(V-ENS)사의 '브이그린' 4대가 운행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버스 2대와 모하비 수소연료전지차 13대가 동원된다.

일반 승용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개조차에서부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양산형 모델까지,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승용차에서 버스까지 우리나라의 친환경 차량 기술로 제작된 모든 그린카가 총출동하는 셈이다.

전기버스와 수소연료전지버스 등 친환경 버스 16대는 행사장과 주변시설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로 사용되고, 블루온 등 승용차 37대는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와 행사 참가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사용된다.

셔틀버스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선릉역, 탄천주차장~회의장, 한국전력공사 앞~코엑스 구간 3개 노선에서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한다.

이 가운데 종합운동장역과 선릉역 사이엔 땅콩 모양의 독특한 외관을 가진 전기버스 10대가 운행된다. 현대중공업, 한국화이바,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버스는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에 삼성역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예정돼 있어 인근 역과 삼성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수소연료전지버스는 한 번 충전으로 3백50킬로미터 이상 달릴 수 있으며 매연 등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앞선 수소연료전지차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와 행사 참가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블루온, 라세티 프리미어 전기차 등 승용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도 성능을 공개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친환경 버스 16대 행사장·주변시설 왕복 셔틀버스로 사용

현대·기아자동차의 블루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되는 전기차이며,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전기차는 아직 양산형 모델은 아니지만 1회 충전으로 1백70킬로미터까지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 시속 1백65킬로미터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의 모하비 수소연료전지차는 한 번 충전하면 6백50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 일반 차량과 주행거리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각국 취재진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올해 개발된 차들이 처음으로 도로주행에 나서면서 우리 기술을 세계시장에 홍보하는 것은 물론 차량 운행 성능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해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자동차



동아DB

1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과 선릉역 사이를 오갈 전기버스 '이프리머스'.

2 현대·기아자동차의 블루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되는 전기차다. 사진은 블루온을 충전하는 모습.

3 현대·기아자동차의 모하비 수소연료전지차는 한 번 충전하면 6백50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 일반 차량과 주행거리 차이가 거의 없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의 첨단 기술력을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인 버스용 급속충전기, 승용차용 급속충전기, 표준충전기, 완속충전기 등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방식의 충전기도 선보인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잠실 종합운동장에 충전기 10기를 설치해 행사에 사용되는 전기차 충전을 돕는다. 전기버스 14대, 승용차 24대의 충전을 위해 버스용 대용량 급속충전기 2기, 승용차용 급속충전기 5기, 완속충전기 3기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평가받게 된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는 30분 만에 1백 킬로와트의 배터리 용량을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능력을 자랑한다.

또 LG CNS는 버스와 승용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다목적 급속충전기를 선보인다. 한국전력공사도 삼성동 본사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를 G20 정상회의 행사에 지원된 승용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G20 정상회의에 지원된 차량 및 충전시설은 행사 후 기업 연구소에서 회수해 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등 자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예정이다.

블루온과 라세티 프리미어 전기차는 행사 후 다시 연구소로 보내져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사용된다. 모하비 수소연료전지차는 서울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2년간 성능평가를 받게 된다. 한국화이바에서 개발한 전기버스는 11월 시범 운행을 거쳐 12월부터 바로 순환버스로 사용돼 시민들이 직접 타볼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의 전기차 충전기도 선보여

이번에 사용된 승용차용 급속충전기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내 환승주차장에 설치돼 전기차의 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에 축적된 운행정보는 앞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의 그린카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는 친환경 차가 확대 보급되는 시작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렇게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그린카와 충전 인프라를 동시에 선보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전기차 세계시장 선점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각국 기자단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정보통신기술, 한국이 최고임을 보여준다

회의장 주변 유·무선 최첨단 통신·방송 서비스망 구축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저마다 보유한 세계 최정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선보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덕분에 회의장과 그 주변에는 유·무선을 넘나드는 최첨단 통신·방송 서비스망이 구축된다.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11월 11, 12일에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화력'을 발산한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그간 우리나라에서 열린 굵직한 스포츠 대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에서 주관 통신사업자로 활약해온 KT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메인 통신사업자로 나선다.

지난 8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주관 통신사업자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한 KT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각종 인터넷, 전화, 해저케이블을 통한 방송회선과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G20 정상회의의 사전 행사 격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선보일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일부 선보였다.



연합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동관 로비에 '미디어 첨성대'가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회의가 열린 경주 힐튼호텔과 프레스센터가 자리한 현대호텔에서 초고속인터넷과 와이브로, 방송 전용회선 등을 가동한 것. 행사장 주변에서도 와이브로와 에그단말기(와이브로 신호를 와이파이(Wi-Fi)로 변환해주는 장비) 임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대로 제공된다.

또한 G20 참가국에는 각국의 방송 채널을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Tablet) PC 등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회의 참가단이 묵는 호텔에도 IPTV 채널을 제공한다. 외국 취재진에게는 실시간 기사 송고가 가능하도록 에그 장비를 지원한다.

kt 정보기술+한국문화 접목한 IT 홍보관 설치

아울러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G20 정상회의 주요 참석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TV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탭 제공을 추진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약 2백 대가 지급될 예정인데, 갤럭시 탭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7인치 LCD 디스플레이, 1기가헤르츠 프로세서 등이 탑재돼 있다.

KT는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IT 홍보관을 설치하여 각종 정보기술과 한국문화의 자랑거리를 접목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자연경관을 실제와 같이 체험하고 청계천, 한강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는다. 입체방송관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3D방송도 선보인다.

KT는 'G20 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정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방송·통신 서비스와 정상회의 진행 시스템 발굴,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통신보안 대책도 운영한다. 태스크


SK텔레콤

9월 27일 미국, 영국 등 정부 대표단이
SK텔레콤 티움 전시장을 찾아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있다.

포스팀과는 별도로 행사장 내 1백여 명의 IT 전문인력을 배치해 인터넷, 유·무선 전화와 위성방송 송수신 등이 이상 없이 고품질로 제공되도록 관리한다.

SK telecom 최첨단 ICT 체험관 '티움'을 홍보대사로

SK텔레콤은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 마련한 최첨단 ICT 체험관 티움(T.um)을 '홍보대사'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티움은 미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체험하는 플레이드림관과 현재의 SK텔레콤 기술 및 서비스를 체험하는 플레이리얼관으로 구성돼 있다.

플레이드림관에서는 ▲동작인식 기술을 통한 홈네트워킹 서비스 ▲다양한 기기연동을 통한 미래형 네트워크 게임 ▲실시간 2D→3D 변환기술 ▲휴대전화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MIV(Mobile In Vehicle) ▲자신의 신체를 복제한 아바타 구현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상품 구매를 위한 이미지 인식 등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가 연출된다.

플레이리얼관에서는 연구개발 중인 음성인식 및 e페이퍼, 3D 입체화 기술과 SK텔레콤 이동통신망 관리 기술 등이 전시된다. 이미 지난 9월 세계 50개국, 60여 명의 전직 대통령 및 총리 모임인 '마드리드' 클럽 회원들이 티움을 방문해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12~14번 게이트 사이에 세워진 티움 에어포트에서도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선보인다. SK텔레콤 이항수 홍보실장은 "외국 주요 인사의 방한 코스로 자리 잡은 티움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정보통신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기간에 서울시청 앞 광장 돔형 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인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에도 참가해 모바일 텔레매틱스, 모바일 결제, 초간편 무선 싱크 등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전시한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포스코 사거리와 봉은사 삼거리, 한강변에 이르는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상의 사각형 구역을 'G20 존'으로 설정해, 네트워크 품질 사전예방 체계 및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해 참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LG U+ 외국인에 임대폰 제공해 기술 우수성 홍보

LG유플러스도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뽐낸다. 특히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에서 광대역통합망(BcN) 관련 기술 개발 성과를 내놓는다.

광대역통합망은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네트워크를 말한다.

실내 와이파이 존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다 실외로 나오면 CDMA EVDO 네트워크에 바로 접속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WiFi-CDMA 이종망 간 핸드오버'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코엑스 부근의 통화량 증가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이동기지국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코엑스 주변 트래픽 증감 추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 직원을 24시간 상주시킨다.

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공항로밍센터에서 LG 롤리팝 모델 1천 대를 임대폰으로 제공해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큐아이닷컴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KT운영센터와 함께 보안체계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알린다. 최근 G20 정상회의가 임박함에 따라 악성코드 스턱스넷(Stuxnet)의 전파가 맞물리며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보안솔루션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G

글 · 유재영 기자

‘경제 월드컵’서 국내 기업 마케팅 열전

주류·호텔·유통·식품업계 등 G20 브랜드 알리기에 온 힘

‘경제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를 맞는 우리 기업들의 G20 마케팅 열기가 뜨겁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비롯해 기업인, 취재진 등 1만여 명이 서울로 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글로벌 브랜드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동아DB



일부 호텔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맞춰 새롭게 단장했다. 임피리얼팰리스호텔은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클럽 임피리얼 라운지’를 열어 국빈들에게 선보인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G20 마케팅’이 열기를 뿜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행사에서 자사 상품이 노출될 경우 국제 인지도 상승과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비슷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에 초점을 맞춰 브랜드 이미지와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SK마케팅앤컴퍼니 이명숙 커뮤니케이션플래닝6팀장은 “G20 정상회의 의미를 마케팅 내용에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가 관건”이라며 “단순히 단기 매출을 올리기 위해 ‘G20 기념’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각종 행사를 여는 것보다는 G20 정상회의 의미를 기업의 지향점 또는 브랜드 가치와 엮어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큰 기대를 걸어온 곳이 주류업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20명의 주요국 정상이 자사의 술을 들고 건배를 한다면 인지도 및 매출이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건배주였던 ‘천년약속’은 2004년 4억원이었던 매출이 2006년 1백8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최근 4백여 종의 술 중 정상회의 만찬 때 사용할 건배주와 만찬주 후보로 12종류를 청와대에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들 가운데 건배주 1종과 만찬주 2, 3종을 결정한다.

건배주로는 청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청주 중에선 롯데주류의 ‘설화’와 금복주의 ‘화랑’이 꼽힌다. ‘화랑’은 지난 10월 21~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건배주로도 사용됐다. 만찬주 중 하나로는 동아원이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만든 와인 ‘온다도로’가 선정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실무 위주여서 ‘공식 건배주’는 없지만 건배할 때 쓸 술은 필요하다. 막걸리는 후보엔 포함됐지만 침전물이 있는 만큼 건배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요 20개국 정상과 수행원, 취재진과 기업인 등 1만여 명이 몰리면서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의 예약률은 90퍼센트를 넘고 있다. 객실료도 뛰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이 모자라 인천·경기지역 호텔까지 특수를 노리고 있다. 일부 호텔들은 G20 정상회의에 맞춰 재개장했고, 일부는 정상들이 묵은 숙소를 향후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류업계, 건배주 통해 인지도·매출 급상승 기대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 쉐라톤그랜드워커힐은 환영만찬 등에서 선보인 한식 메뉴를 향후 고정 메뉴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호텔 관계자는 “한식당 ‘온달’이 전통 궁중 조리법을 사용해 선보인다”며 “향후 상품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피리얼팰리스호텔은 11월 한 달간 전통 한옥식 인테리어로 꾸민 ‘클럽 임피리얼 라운지’에서 퓨전 한정식 코스메뉴를



동아DB

이것이 G20 정상들의 패션. 제일모직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념해 '프레지던트 라인' 정장과 청사초롱 문양의 넥타이를 선보였다.

선보인다. 전복죽, 섭산삼, 잣즙 대하냉채, 더덕 샐러드, 너비아니, 메로구이 등 9, 10가지 음식으로 구성했다.

노보텔앰배서더강남은 미국 디자인회사 '윌슨'과 손잡고 그랜드볼룸과 뷔페레스토랑을 전면 개·보수했다. 롯데호텔은 지하 1층에 있던 한식당 '무궁화'를 최고층인 38층으로 옮겨 열었다.

유통·식품업계, 기획전 및 제품 협찬 등 마케팅에 총력

유통업계는 기획전을 열고 식품업계는 G20 정상회의에 제품을 협찬하는 등 G20 마케팅에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은 11월 12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 강남점에 'G20 SEOUL SUMMIT 2010,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다.

강남점은 11월 12일 'G20 축하~ 단 하루! 쇼핑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구매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5퍼센트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고 브랜드별로 기획 상품을 20~40퍼센트 할인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11월 31일까지 'G20 정상회의 기념 와인페어'를 열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가별 인기 와인 특가전과 1등급 와인 특별전, 그랑크뤼급 와인 특선전 등을 1천여 개 품목, 10만 병 규모로 진행한다.

한국인삼공사는 G20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 정관장 홍삼 제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G20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 '정관장 카페'를 열어 '홍삼라떼'와 '홍삼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퓨전 홍삼 제품도 선보인다. 한국인삼공사 측은 "이들 음료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개발해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다"며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장관실, 접견실, 미디어센터에 '홍삼 한뿌리' 1만 병과 '울릉 미네워터', 건강보조음료 '다운 초이스' 등을 제공한다. CJ푸드빌은 11월 11일 비빔밥 브랜드 '비비고'의 테이크아웃 비빔밥 4백인분과 '투썸플레이스'의 샌드위치와 음료를 협찬한다. CJ푸드빌 김무종 홍보부장은 "외빈들이나 외신 기자들에게 한식 세계화를 겨냥해 출범한 '비비고'의 비빔밥을 알린다는 취지"라며 "매출 증대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비비고' 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션업체들은 아예 기념판을 출시했다. 제일모직의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는 슈트, 셔츠, 넥타이, 포켓스퀘어, 보타이 등 5가지 아이템으로 구성한 '프레지던트 라인'을 출시했다. 갤럭시 이현정 디자인실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각국 대표들의 스타일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들이 배워야 할 클래식 슈트룩 법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LG패션의 남성복 '마에스트로'는 1백60만원대의 'G20 기념 슈트'를 내놨다. 각국 특성과 정상들의 스타일을 분석해 이명박 대통령(한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미국),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프랑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이탈리아) 등 4가지 슈트를 선보였다. G 글 · 강유현(한국경제신문 생활경제부 기자)

"G20 성공 개최로 한국은 선진국 반열 오를 거예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역동적이고 영민한 나라다." 많은 외국인들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 문화에 낯설지 않은 주한 외국인들이 이번 행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봤다.

마크 브룸 tbs 교통방송 기자, 영국 출신
"세계에 한국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게 참 놀랍고 축하할 일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로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tbs 교통방송 영어뉴스부의 영국 출신 기자 마크 브룸(31)씨는 요즘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취재로 분주하다. 얼마 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손지애 대변인을 인터뷰해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보도했고, G20 참가국들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도 진행하고 있다.

11월 11일과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취재 현장에서도 tbs eFM(101.3Mhz)의 메인 리포터로 활동한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자세히 취재해서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보도 늘려 이미지 높여"

tbs eFM은 한국에 살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소개하고 실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영어 방송채널이다. 교통방송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기도 한 그는 취재 외에도 매일 오후 3시, 6시,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BBC 등의 해외 뉴스를 편집하고 한국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산 지 6년째, 그는 이제 한국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지난해 8월 한국 여성과 전통혼례를 올린 그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줄 만큼 10개월 된 아들 자랑에 푹 빠져 있다. 아들 이름도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민호'라고 지었다.



tbs 영어뉴스부 마크 브룸 기자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국과 서울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서울 북촌 한옥의 전통적인 멋을 사랑하고, 김치찌개와 삼겹살이 입에 딱 맞고,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을 재미있게 본다는 그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며 기자로서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답게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서울과 대한민국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레스 투어가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 기자들이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도를 늘림으로써 서울과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히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이혜련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타니 루미코 가수 김정민 부인, 일본 가수 출신
"한국, 국격·국가브랜드 가치 쑥쑥"

"한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 같아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도 안주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정진하니까요."

가수 김정민의 부인으로 요즘 TV에 얼굴을 자주 내밀고 있는 타니 루미코(31) 씨.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6년 김정민과 결혼한 그는 한국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면서 지난 4년 동안 느낀 우리나라의 강점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온정적인 문화에 깊은 호감을 나타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움에 처한 주위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베푸는 문화에 매료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관심을 실례라고 여겨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젠 제가 아프다고 전화해도 걱정하지 않는 친정식구들한테 서운해요(웃음)."

결혼생활 5년차로 접어든 지금, 그에게 한국은 제2의 모국이나 다름없다. 그는 세 살, 네 살 된 두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할 때, 영어로 질문을 받아도 한국어가 먼저 튀어나올 때, 시어머니가 담가준 맵고 짠 한국김치를 친정으로 가져갈 때마다 '한국인이 다 된' 자신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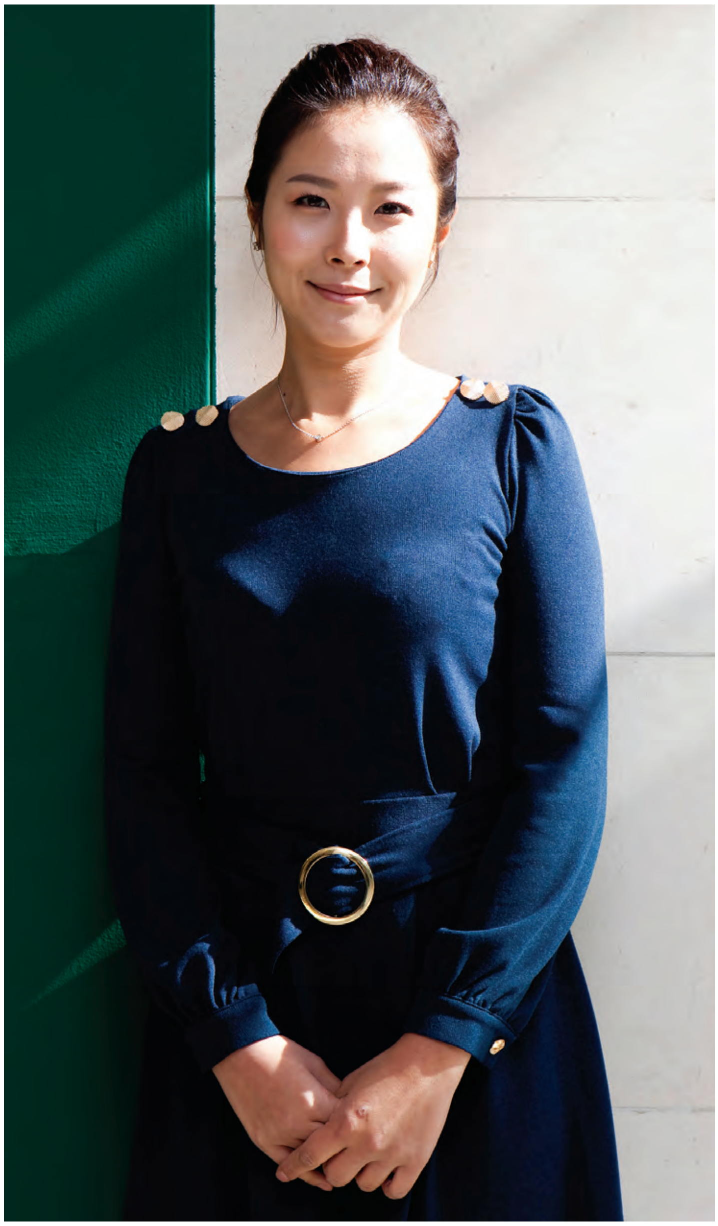
"일본에서 달달한 김치만 먹다가 한국김치에 맛을 들였더니 친정에 가면 한국김치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일본행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닐봉투와 랩으로 완전 밀봉해 가져가죠."

"질서의식·깨끗한 거리, 경제성장만큼 놀라워"

루미코 씨가 가장 잘 만들고 좋아하는 한국음식 역시 김치찌개다. 남편 김정민도 그가 끓인 참치 김치찌개만 있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운다고 한다. 매콤한 낙지볶음과 꽃게탕도 제법 잘 만든다는 그는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에게서 요리를 배웠지만 머잖아 요리학원에 등록해 정식으로 한식 요리법을 배울 계획"이라고 했다.

일식보다 한식을 즐겨 먹는 그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의 전망도 밝게 봤다. 한식 세계화가 성공하려면 음식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요식업 종사자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친절해졌다는 것.

"눈에 띄게 나아진 질서의식과 깨끗해진 거리도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만큼이나 놀라워요. 10년 전 한국을 찾았을 때는 지저분한 동네도 많고 질서도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만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습관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타니 루미코 씨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 주위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인심을 한국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나날이 발전하는 시민의식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토대로 서울 G20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격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선진국 반열에 오를 거예요. 경제 발전상만 선진국이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 성숙한 진정한 선진국으로요."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따루 살미넨 '따루주막' 주모, 핀란드 출신
"편견 없이 한국의 문화와 맛 즐길 수 있길"

"한국은 이미 경제 분야에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나 법 규제 같은 분야를 평가한다면 선진국 기준에 못 미치는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BS 1TV '쾌적한국 미수다'에 출연하는 따루 살미넨(33) 씨는 방송을 통해 '막걸리 예찬론'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 즐겨 먹는 음식으로 홍어회, 청국장, 내장탕을 꼽는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막걸리를 마셔보고 싶다'는 꿈을 피력할 정도로 열성적인 막걸리 애호가다.



막걸리의 참맛을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따루 살미넨 씨는 앞으로 주막을 통해 핀란드의 술과 음식을 소개하며 한국과 핀란드의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12년 전 핀란드 헬싱키대학 재학 중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시절만 해도 술은 입에도 대지 못하던 그였지만, 고려대 부근에서 거주하며 막걸리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 친구들과 사귀면서 소주, 막걸리 등 한국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막걸리의 맛과 향에 끌려 전통주에 빠지게 됐다"고 말한다.

'막걸리학교'에 입학해서 막걸리의 역사부터 술 빚는 법에 이르기까지 막걸리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배운 살미넨 씨는 최근 홍익대 부근에 오랫동안 계획했던 '주막'을 열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따루주막'이다.

따루주막에서는 한국, 일본, 핀란드의 술과 안주를 만날 수 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나라의 술이지만 의외로 뛰어난 궁합을 보인다.

"핀란드 보드카,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듯"

"같은 통에서 만들어졌지만 윗부분의 맑은 술은 청주, 밑에 있는 술은 막걸리가 됩니다. 그러니 결국 막걸리와 청주, 사케는 형제인 셈이지요. 핀란드 보드카는 맛이 깔끔하고 숙취가 적어 좋은데, 소주와 똑같은 증류주인 만큼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문화를 잘 아는 외국인으로도 유명한 그는 얼마 전 핀란드 기자단과 한식당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앞에만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놔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든 순간 '내가 한국사람 다 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고 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 전통주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살미넨 씨는 유럽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술의 매력으로 다양한 발효주와 과실주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발효법이나 보존 기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막걸리는 결코 와인에 뒤지지 않는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한국음식을 잘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편견이 음식 맛을 제대로 볼 기회를 빼앗는다는 반성을 한 뒤부터 하나하나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맛있는 한국음식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들도 편견 없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맛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이윤진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따루주막 ☎ 02-325-3322 tarujumak.co.kr

마리아 안젤린 마틴 로페즈 가톨릭대 국제관계학 석사과정, 필리핀 출신
"G20 통해 한국과 필리핀 'Good Relationship' 희망"



한국이 좋아 필리핀에서 날아온 안젤린 씨.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필리핀이 좀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여기서도 '지 트웬티'(G20), 저기서도 '지 트웬티' 소리가 들려요. 정말 제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기뻐요."

필리핀 여성 마리아 안젤린 마틴 로페즈(23) 씨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이야기를 꺼내자 서투른 한국어지만 빠른 말투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난 10월 11일 32개국 주한 대사관의 협력단체인 국제사회복지정책위원회와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제1회 '미스 다문화' 선발대회에서 입상해 앞으로 한국인들과 이주민들이 교감을 나누도록 하는 도우미로 활약할 예정이다.

현재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안젤린 씨는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결국 한국에까지 오게 됐다.

"실라(신라), 백제, 주선(조선)…? 맞나요? 대학 때 한국의 '히스토리(History)'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 외엔 잘 몰랐지만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하드 워킹(hard working)' 하는 것 보면서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 꼭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2007년 부산 신라대 국제관광경영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2년간 한국을 경험했다. 부산의 아름다움과 친절한 사람들, 특히 한 달간 홈스테이로 머무른 자취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를 잊지 못한다.

"자취집 '엄마' 정말 '굿 메모리'예요. 비빔밥, 김치 너무 맛있었고 싱싱한 회도 엄마가 자주 해주셨어요."

한국에 묘한 매력을 느낀다는 안젤린 씨. 전공 역시 국제관계학이다 보니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 G20 정상회의 외국인 자원봉사단에도 지원하려 했을 만큼 기대도 많이 했다고. 한편으로는 이런 세계적인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한국이 부럽다고 한다.

"이제 필리핀은 한국에게서 '영감'을 얻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직 필리핀은 농업국가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를 더 이끌어내야 하고,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관광 자원도 충분히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해요. 필리핀엔 7천1백17개나 되는 섬이 있잖아요?(웃음).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대국들이 서로 어떻게 자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안정을 꾀하는지를 필리핀이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교류 통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배웠으면…"

서울 G20 정상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가 가장 바라는 건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진전되는 것이다. 인터뷰 내내 '굿 릴레이션십(Good Relation-ship)'을 바라는 소망을 거듭 드러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G20 정상회의가 한국과 필리핀이 더 확고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필리핀에 삼성, 한진, LG, 현다이(현대) 등 한국 기업이 앞으로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해요. 필리핀 젊은이들이 그 기업들을 보면서 '리스펙트(Respect · 존경)'한다고 말해요. 경제교류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이 더 많이 한국을 배웠으면 합니다. 작은 바람이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선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했으면 해요."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정성껏 '청사초롱' 들겠습니다

숙박·교통·통역 등 손님맞이 자원봉사자 마음다짐

'안전점검 이상 무. G20, 웰컴 투 코리아(Welcome to Korea)!'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손님 맞을 채비로 분주하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크기는 국민도 정부 못지않다. '나'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이번 정상회의 준비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숨은 일꾼들의 활약상을 따라가봤다.

지난 10월 31일 서울광장에는 똑같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선발한 서울 G20 정상회의 자원봉사자들.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이날 발대식을 가진 서울시 G20 자원봉사단은 행사를 마친 뒤 서울시청 주변 호텔과 지하철역, 덕수궁 등지에서 외국인 연기자들의 상황 연출에 맞춰 상황별 대처 요령을 익히는 현장 실습을 했다.

자원봉사단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G20 정상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숙박, 교통, 문화관광, 홍보 등으로 분야를 나눠 안내와 지원 업무를 맡는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행사장과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목적지까지 동행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자원봉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언어와 교육과정 평가 등을 거쳐 총 5천8백17명의 자원봉사자를 뽑았다. 부산대 경영학과 2학년 최정규(21) 씨는 "군 제대 직전의 휴가 때 자원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중학생 시절 중국 유학을 다녀온 경험을 살려 중국어 자원봉사자로 지원했다"며 "이번에 지하철과 주변 관광지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서울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돼 흐뭇하다"고 말했다.

"온 국민이 반장엄마 된 기분으로 관심·애정 주세요"

이번 정상회의의 준비상황과 행사의 이모저모를 알리는 일은 '청사초롱 e-리포터'가 하고 있다. 청사초롱 e-리포터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홍보단으로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 통신원과 명예기자로 활동영역을 나눠 총 1백명이 뛰고 있으며 중학생부터 주부까지 직업이나 연령대도 다양하다.

명예기자로 활동 중인 미국 유학생 김지환(24·애리조나

10월 31일 서울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진 서울시 G20 자원봉사단(왼쪽). 경찰특공대원들이 G20 정상들의 철통 경호를 위해 종합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동아DB

주 퍼듀대 4년) 씨는 해외에서 쌓은 외국어 실력으로 이번 정상회의 관련 기사가 난 외신을 모니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의제가 민감한 내용이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점치던 외신들이 최근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이번 정상회의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연소 리포터'인 최영웅(12·안양 평촌중 1년) 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운영해온 블로그를 활용해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에티켓에 대한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블로그에 올렸더니 반응이 아주 좋다"며 기뻐했다.

서울시 자원봉사단을 겸하고 있는 주부 김지연(37) 씨도 홍보 활동에 푹 빠진 열혈 리포터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와 블로그는 물론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잘해보라며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고맙고 든든하다"고 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재난 대응과 테러 위협 차단은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특공대가 담당한다. 그동안 수십 차례 대(對)테러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한 소방방재본부의 김문용 반장은 "모든 부원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 "1백50여 대의 소방차와 1천8백여 명의 인력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하고 11월 8일부터는 중앙 119구조대를 전진 배치해 안전한 정상회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 경호를 맡은 경찰특공대도 비상근무를 해오긴 마찬가지다. 경찰특공대원인 김범수 경사는 "11월 6일부터 24시간 근무체제에서 42시간 근무체제로 바뀌었다"며 "회의장과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서 과격 시위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 경호와 경비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테러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G20 기획단도 조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G20 기획단의 김주영 경감은 "코엑스 행사장과 부대 행사장, 공항, 숙소 등 주요 장소의 출입통제를 위한 비표 관리를 맡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경찰은 경찰경호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행사에 참여하는 VIP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통역 면에서도 정상급 회의 될 듯

정상회의와 미디어센터의 통역은 온전히 우리 힘으로 구성한 통역단이 맡는다. 통역단 조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진영(53·이화여대 통역대학원 부원장) 수석통역사는 "이번 정상회의는 통역 주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총회 같은 큰 국제행사는 외국에서 구성한 통역단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큰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직접 통역단을 꾸리기는 처음입니다. 정상회의 통역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뛰어난 베테랑으로만 60명을 모았더니 G20의 모든 참가국이 통역을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통역 면에서도 정상급 회의가 될 겁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6백60명의 지원요원을 뽑았다. 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나라별 의전 지원, 출입국과 행사장 출입 안내, 기자들의 취재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G

글·김지영 기자

소방대원들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모의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G20 정상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TTL 부스를 설치한 청사초롱 e-리포터(오른쪽).





"G20 원만한 성취는 희망·상생의 메시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G20 정상회의 성공 기원 법회' 봉행

불교계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국운 상승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의 발전과 상생 화합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불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등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인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는 개회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원만한 성취는 한민족이 인류에게 전하는 희망과 상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참뜻은 부처님의 自他不二 정신과 다르지 않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행사에서 "G20 정상회의가 선진국들의 배타적인 모임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의견이 반영되는 모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에도 눈을 돌리는 국제적 책임을 자임하는 모임이 되길 기원한다"며 "잘사는 나라들만의 화합이 아니라 지구촌 국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도 발원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각국의 원조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만큼 자만과 남용을 경계하고 겸손과 베풂을 선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해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원했다.



조영철 기자

11월 4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G20 정상회의 성공 기원 법회'를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참뜻은 국가와 인종, 지역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인류가 함께 공동번영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이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가난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제까지의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들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G

글·이혜련 기자

"G20 통해 한국의 유·무형 매력 확산될 것"

민주평통, 차세대 대표자 역할 모색 위한 합동포럼

국내외 차세대 대표들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세계질서 안에서 차세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1월 5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0 차세대 대표자 합동포럼'이 그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은 '차세대 통일리더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유 학장은 강연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신흥국과 비회원 개도국의 발전 모델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개도국 경제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어젠다'가 금융위기 해결은 물론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흐름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회의 기간 중 해외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한민족의 전통문화, 자연, 현대문화등 한국 특유의 유·무형 매력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차세대 통일리더에게는 국가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요구된다. 재외동포 7백50만 명의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통일 후 건국될 새로운 나라에 이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차세대 한인 리더들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G20 성공 개최 위해 자원봉사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G20, 새로운 세계질서와 차세대의 역할'이라는 발제문에서 향후 G20의 발전 과제로 주체 확정의 문제, 의제 확대의 문제, 제도 혁신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또 "국제경제의 85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G20 회원국들이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과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 외에도 개발, 기후변화, 에너지 등 기존의 G7, G8 국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의제를 확대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적극 추진 ▲연례회의 개최국 순번에 대한 규칙 설정 등 제도적 혁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기자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이 11월 5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0 차세대 대표자 합동포럼에서 '차세대 통일리더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회원국 구성 문제의 개선과 G8과의 효율적 분업구조 모색, 상설 사무국의 설치 추진, 향후 G20 정상회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비전 그룹(Vision Group) 설치 등을 제안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동포럼의 사회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으며 유현석 경희대 교수, 추혜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시의원 보좌관, 김동성 거제신문사 대표 등이 차례로 연단에 나와 전체토론을 주재했다.

포럼에 참석한 차세대 자문위원 25명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내외 차세대위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차세대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차세대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이 벌인 그룹별 토론은 차세대 통일 활동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이들 자문위원은 포럼이 끝난 11월 6일 강화도 통일전망대와 평택 해군기지를 방문해 천안함 참상을 확인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1월 9일에는 서울 중구 장충동의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는 한편 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G

글 · 김지영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돼 말끔한 모습인 낙동강 부산 화명지구.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업이다. 동아DB

4대강살리기, 생명 불어넣는 사업

4대강에 내년 3조3천억원 투입… 총 예산의 1% 수준

4대강살리기 사업은 말 그대로 강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못 하는 강의 퇴적토를 걷어내 수질을 개선하고 물그릇을 키우며 강도 사람도 살리자는, 생명을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물부족 국가인 우리에게 절실한 물을 사계절 넉넉하게 확보하고, 여름이면 홍수를 예방하며, 아이들이 물장구치고 놀 수 있는 강으로 만드는 물 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가까운 장래인 201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0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은 연간 약 3백40억 톤인데, 화천댐 규모만한 물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이용량의 60퍼센트가량을 하천에서 얻다 보니 조금만 가물어도 취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엔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평균 수해 피해액이 1조5천억원, 복구비가 2조4천억원입니다(2002~2006년 4대강 유역). 퇴적토를 걷어내고 물을 흐르게 해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좋은 수변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4대강 사업이 '예산의 블랙홀'인가요.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정부의 총지출 3백9조6천억원의 1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블랙홀'이라는 주장은 좀 지나칩니다.

201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퍼센트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SOC 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에 역점을 두고 집중 투자합니다.

정부의 총지출도 민생과 미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에 전년보다 10.1퍼센트 증가한 32조1천억원(2010년 29조1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 ‘8대 과제’에 23조7천억원(2009년 20조8천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4대강 예산으로 여타 SOC 투자가 축소됐나요.

2년간 SOC 예산이 늘어났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2011년 SOC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시행된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예산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1년 예산안 규모도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위기 이전인 2009년의 당초 정부안(20조7천억원)보다 아주 조금 늘어난 21조원입니다.

SOC 예산은 줄이면서 4대강 예산은 16.8퍼센트 늘린 것 아닌가요.

일부에서 4대강 관련 예산으로 보이는 항목들을 다 취합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들을 잘 들여다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은 2010년 사업비와 비교할 때 6백억원(1.9퍼센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16.8퍼센트 증가’ 주장은 ▲환경부(1조원) ▲농림수산식품부(1조2천억원) ▲수자원공사 자체 투자(3조8천억원) ▲수자원공사 지원(3천억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관련 사업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추진돼오거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수학에서의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 사업과 4대강 사업 사이에는 서로 연관된 ‘교집합’ 부분도 있지만 이들이 4대강 사업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분리된 독자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총인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4대강뿐 아니라 전국 1백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전국구’ 사업입니다.

영산강 하굿둑 개선 사업의 경우도 4대강 사업 이전부터 노후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이 밖에 수자원공사의 자체 투자는 경영 지원을 위한 출자 성격이란 점을 봐주십시오. G

글 · 박경아 기자

1사 1하천 운동 협약식

푸른 4대강, 우리 손으로 지킨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푸른 것이 어디 숲뿐이랴. 푸른 4대강으로 흘러드는 지류 곳곳에서 우리 고장의 강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 가꾸자는 ‘1사(社) 1하천 운동’이 펼쳐진다.

민관이 함께 우리 고장의 하천 정화를 맡고자 나선 ‘샛강·실개천 살리기 1사 1하천 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이 11월 4일 경남 양산시 양산천 둔치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엄용수 밀양시장 등 13개 기관장과 울산·경남환경보전협회, 한국화이바, 한화케미칼, STX조선해양 등 24개 기업 대표와 단체장, 지역주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1사 1하천 운동’은 4대강의 근원인 샛강, 실개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기관과 단체, 기업들의 하천 관리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4대강 본류에 집중된 관심을 지류에도 돌려 하천 수질 개선, 생태 복원, 하천환경 보전활동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1사 1하천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협약 체결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11월 15일 오전 전남 화순군 화순천 둔치에서도 ‘1사 1하천 운동’ 협약식과 발대식이 열린다. 화순천은 총 97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하천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광주광역시, 화순군이 공동 주최하는 이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전완준 화순군수 등 지역 단체장과 GS칼텍스, 현대삼호중공업, 한화케미칼, 광주은행 등 기업 대표 및 단체장 등 약 5백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

11월 4일 경남 양산시 양산천 둔치에서 열린 1사 1하천 운동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소망연을 날리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추이 *본예산 기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정부안)
SOC	19조6천억원	24조7천억원	25조1천억원	24조3천억원 (0.8% 감소)
4대강 사업 제외 시	19조6천억원	24조3천억원	21조9천억원	21조원(0.9% 감소)



왕비의 침실인 교태전 서쪽 내순당 앞에서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최선경 회장이 왕비의 침소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우리 역사 속 '여자의 자격'을 발견하다

여성의 눈으로 문화 해설하는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여성문화유산연구회는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화 해설을 하는 모임이다. 7년 전 여성의 눈으로 역사를 새로 보기 위해 의기투합한 이들은 왕실 여성들뿐 아니라 신사임당, 허난설헌, 이매창, 논개 등 중요 인물들의 발자취를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으로 들어서는 길은 마치 현재에서 과거의 역사로 넘어가는 타임머신 같다. 지난 9월 17일 청명한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는 고궁으로 도심 속 시간여행을 떠난 이들은 여성문화유산연구회가 운영하는 '여성문화재 지킴이 스토리텔러' 과정 수강생 36명과 해설사 4명이다.

"그동안 역사의 기록은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담당했던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여성들은 그 이면에 존재감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어 있던 역사 속 여성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역사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찾고자 합니다."

힘과 권력을 쥔 남성 위주의 역사에 가려져 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아내어 역사관을 재정립하는 것이 여성문화유산연구회의 창립 취지라고 최선경(44) 회장(《왕을 낳은 후궁들》 저자)은 설명한다.

TV 드라마에서는 선덕여왕이나 장희빈 같은 역사 속 여성의 이야기가 인기를 끌지만 정작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여성의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역사 속 여성 찾기는 남성 인물 중심으로 서술된 기록 여기저기에서 한 조각씩 찾아내어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과 같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는 지난 6월 경북 영양군에서 안동 장씨 부인의 발자취를 따라 너울길 답사를 했다.

이날 고궁 답사의 테마는 '왕실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다. 경복궁 왼편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돌아보는 순서가 먼저다.

박물관 내 탄생교육실에서는 조선왕실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했던 출산과 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출산 예정 3개월 전부터 궁궐의 관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어요. 길일을 택해 해산 날짜를 잡고 좋은 자리와 방향을 정해 산실을 마련했는데, 출산하는 자리에는 사슴 가죽, 짚 멍석, 기름종이 등을 5겹으로 깔고 산모의 베개는 다람쥐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문화재 지킴이 스토리텔러 양성·답사 프로그램 운영

이정향(56) 문화유산해설사는 탯줄 관리에 대한 비화도 들려준다. 생명의 시작인 탯줄이 아이의 장수와 복, 나아가 왕조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믿어 탯줄 관리는 중요한 국가 행사의 하나였다. 출생아의 태반을 정성스럽게 도자기(태 항아리)에 담아 좋은 기운이 있는 곳(태실)에 탑을 세우고 그 아래 묻어 무병장수의 기운을 받도록 기원했다.

박물관을 나와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을 둘러보며 최선경 회장이 교태전의 안주인들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태전의 첫 주인은 세종의 부인인 소헌왕후였죠. 교태전은 왕비의 공간이면서도 실제로 이곳을 사용한 왕비는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가 가장 오랫동안 교태전의 주인으로 머물렀습니다.

특히 세조는 여기서 정희왕후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무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희왕후는 이곳에서 세조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세조가 죽고 성종이 즉위한 후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누린 왕비였습니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는 2003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주관한 여성문화유산해설사 양성과정에 참가했던 여성들이 만든 동아리에서 비롯됐다. 이후 연구회는 7년째 역사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알리고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화유산 해설을 연구하며, 여성문화재 지킴이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올해 상반기에 역사 속 여성인물을 찾아가는 일명 '너울길 답사'로 강원 강릉시의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전북 부안군의 이매창 등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하반기에는 전북 장수군의 논개, 강원 원주시의 임윤지당(조선 후기 성리학자)과 작가 박경리 코스를 답사하고 있다.

또 매월 둘째 금요일에는 자식이 없는 후궁이나 출가 후 남편을 일찍 잃은 왕실 여성들이 여생을 보낸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정업원(淨業院)을 찾아가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걷기 답사는 고구려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아차산성길, 고양 행주산성을 둘러보는 덕양산길, 수종사와 운길산을 찾아가는 남양주 기차 여행 등이다. 참가자들은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인터넷 카페에서 역사 속 여성인물과 지역별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여성에 대한 기록은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있다 해도 번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미개척 분야입니다."

TV 드라마에서는 선덕여왕이나 장희빈 같은 역사 속 여성의 이야기가 인기를 끌지만 정작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여성의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홍영혜(49) 문화유산해설사는 "역사 속 여성 찾기는 남성 인물 중심으로 서술된 기록 중 여기저기에서 한 조각씩 찾아내어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처럼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공감대를 지닌 여성들끼리 어깨를 겯고 가는 길이라 힘이 난다.

이날 해설을 들은 여성문화재 지킴이 스토리텔러 과정 수강생 문혜경(45) 씨는 "그동안 고궁에서 문화유산 해설을 여러 번 들었지만, 왕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문화해설은 처음"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G

글·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여성문화유산연구회 cafe.naver.com/genderguide

국내 최초 10대 미혼모 위한 나래중고등학교

"아이도 키우고 내 꿈도 이룰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당당한 '리틀 맘'들이 꿈을 위해 학업에 정진한다. 이들을 독려하는 곳은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인 나래중고등학교. 10대 임신 여학생들이 한 아이의 엄마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그곳을 찾았다.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나래중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중고교에 다니다 임신을 하는 여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설립된 이 배움터는 미혼모 복지시설인 '애란원' 안에 만들어졌다.

"그동안은 재학생이 임신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학교가 퇴학이나 전학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옮겨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무주임을 겸하고 있는 강영실(51) 애란원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으로 임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학생들뿐 아니라 이미 퇴학, 자퇴, 휴학 중인 학생이라면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뒤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래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적은 원래 소속된 학교에 두고 여기서 취득한 출결 및 성적 처리를 재적 학교에서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9월 초에 2명이 등록했던 나래중고에는 현재 5명의 학생이 등록한 상태다. 처음 등록했던 학생들 중 두 명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원래 다니던 학교와 복학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청강생 자격으로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떠나야 했다.

"임신 이유로 자퇴 강요는 인권침해"

지난 5월에 임신 사실을 알았던 이 학생의 경우 학교 선생으로부터 낙태를 권유받았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 자퇴를 선택했다고 한다. 나래중고를 다니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며 찾아온 이 학생을 위해 애란원에서 원래 다니던 학교와 접





▲ 나래중고 교무주임을 겸하고 있는 강영실 애란원 사무국장은 "10대 미혼모를 돕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 계획을 세울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 미혼모 복지시설 애란원은 지난 7월 학교를 다니다 임신한 여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나래중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촉을 시도했지만 "우리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자퇴 처리되면 어쩔 수 없다"는 냉담한 대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혼모 여학생들의 학습권이 화제가 된 것은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임신을 해 다니던 여고에서 자퇴를 강요받았던 김수현(당시 18세) 양이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결과였다. 이후 인권위 권고에 따라 김 양은 재입학했고 같은 해 12월 딸을 출산한 뒤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2007년 통계를 보면 미혼모 시설 입소자 중 10대 청소년은 약 30퍼센트를 차지한다. 출산하는 19세 이하 청소년은 한 해 3천여 명에 이른다. 출산을 앞두고 시설을 찾아오는 10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임신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당하거나 아예 스스로 무단결석을 하다 자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강 사무국장은 "10대 미혼모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 중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경우 학교 졸업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이 우선 필요해서라는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학교에서는 미혼모를 학생으로 원하지 않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는 어린 미혼모들이 얻을 수 있는 직장은 저임금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교 졸업을 원하고 있다. 서울여대 교육복지연구센터가 2007년 청소년 미혼모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87.6퍼센트가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미혼모 87.6% "공부 계속하고 싶다"

또한 강 사무국장은 "10대 미혼모를 도와주는 것은 이들의 무책임함, 방종을 인정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립 계획을 세울 여건이 안 될 때 미혼모의 재임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혼모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8주까지 출산휴가를 주고 수업 일수를 인정하며 대만에서는 2년의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등 청소년 미혼

나래중고 운영 방침 및 교과 내용

대상	임신을 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여학생으로서 해당 지역 교육청이 인정하면 위탁교육 가능. 퇴학, 자퇴, 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가능.
학적	원 소속 학교 중3, 고3의 경우 위탁학생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재적 학교의 졸업장 수여.
교육과정	보통교과 40퍼센트, 대안교과 60퍼센트로 보통교과는 중학교 주당 33시간, 고등학교 주당 35시간.
교육 내용	① **보통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② **대안교과** – 진로직업교육(직업탐색, 직업체험, 직업멘터링), 컴퓨터교육(ITQ 자격시험 대비, 한글, 엑셀), 가정경영과 법(생활법률, 공공복지제도, 양육권 소송, 채무관리, 가정생활설계), 인권교육(인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대처), 건강교육(모성건강, 산전 산후 건강관리, 건강한 성 관리, 피임, 정신건강), 문화교육(인문강좌, 연극, 영화, 음악회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방문), 예비부모교육(태교, 부모역할, 아동발달), 영아기 유아교육(0~12개월 기초 육아법, 1~3세 육아), 1인 1악기 교육, 그리기 교실

모들을 교육 시스템 안에 포용하고 사회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해외 여러 나라의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미혼모들 중 아이를 입양보내기보다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애란원의 경우 1년에 80여 명이 입소하는데 이중 80퍼센트가 양육을 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래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처럼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은 출산할 때까지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직접 기르는 학생 엄마들이 어떻게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지 등 아직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다.

나래중고에서 수업을 받는 미혼모들은 애란원에 머물면서 수업시간의 40퍼센트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배우고 나머지 60퍼센트는 예비부모교육, 자격증 수업, 진로직업교육, 영아기 육아교육 등 다양한 특성화교육을 받는다. 모성 건강과 안전한 성 관리, 피임에 대한 건강교육도 포함돼 있다.

애란원 안에 탁아소가 있어 출산 후에도 당분간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중3, 고3 학생은 나래중고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재적 학교의 졸업장을 받게 된다. 본래 다니던 학교로 되돌아가는 시기는 입양이나 양육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학교와 상의해 결정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 춘천, 부산, 울산에서 미혼모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이 최소 1개씩 미혼모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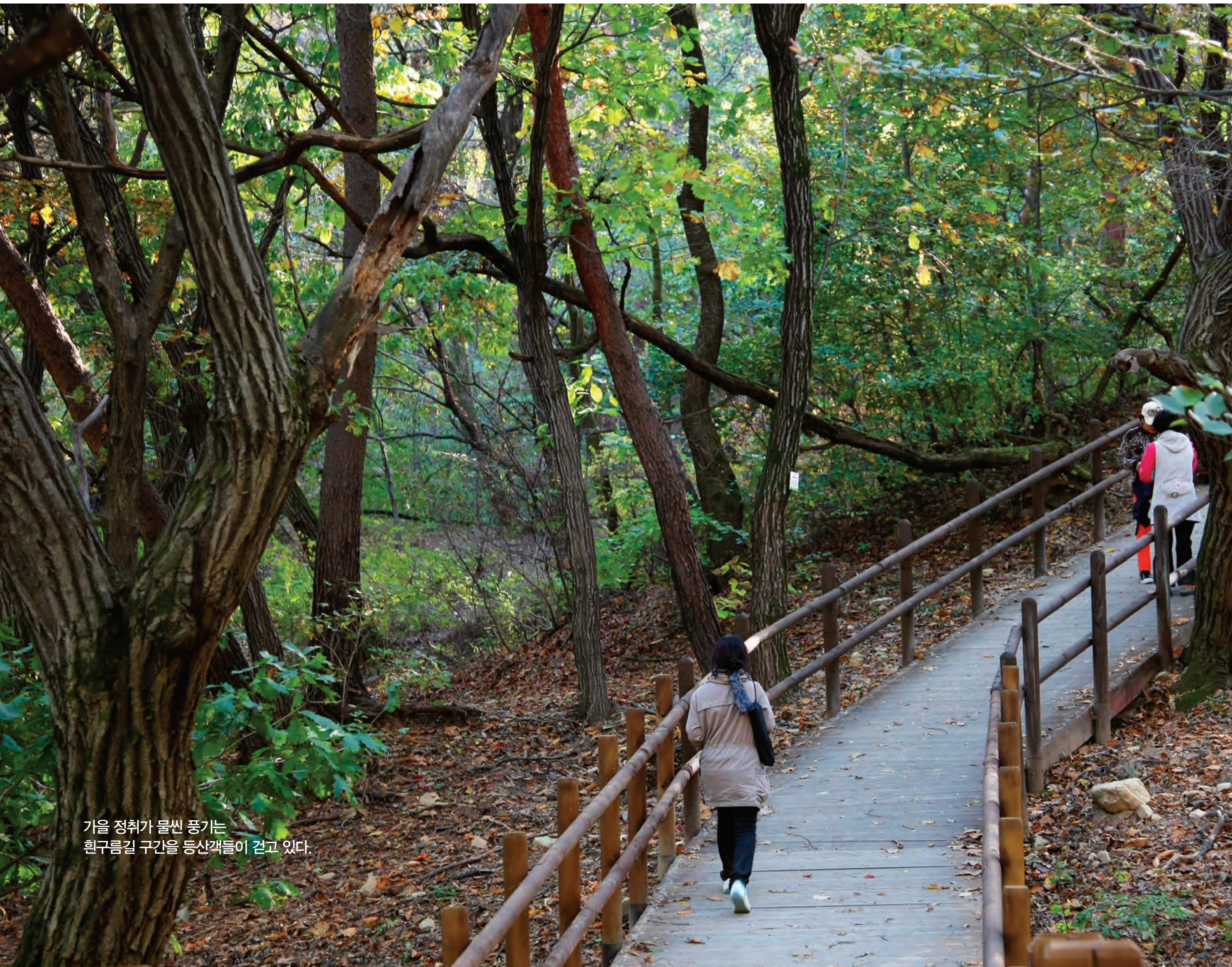
애란원 ☎ 02-363-4750 www.aeranwon.org



◀◀ 가을 햇살이 긴 그림자를 드리운 구름정원길의 나무데크 구간.
◀ 평창동과 정릉동 사이의 명상길 구간은 시점과 종점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제법 가파르다.

북한산 둘레길

서울 속 자연공간… ‘걷고 싶은 길’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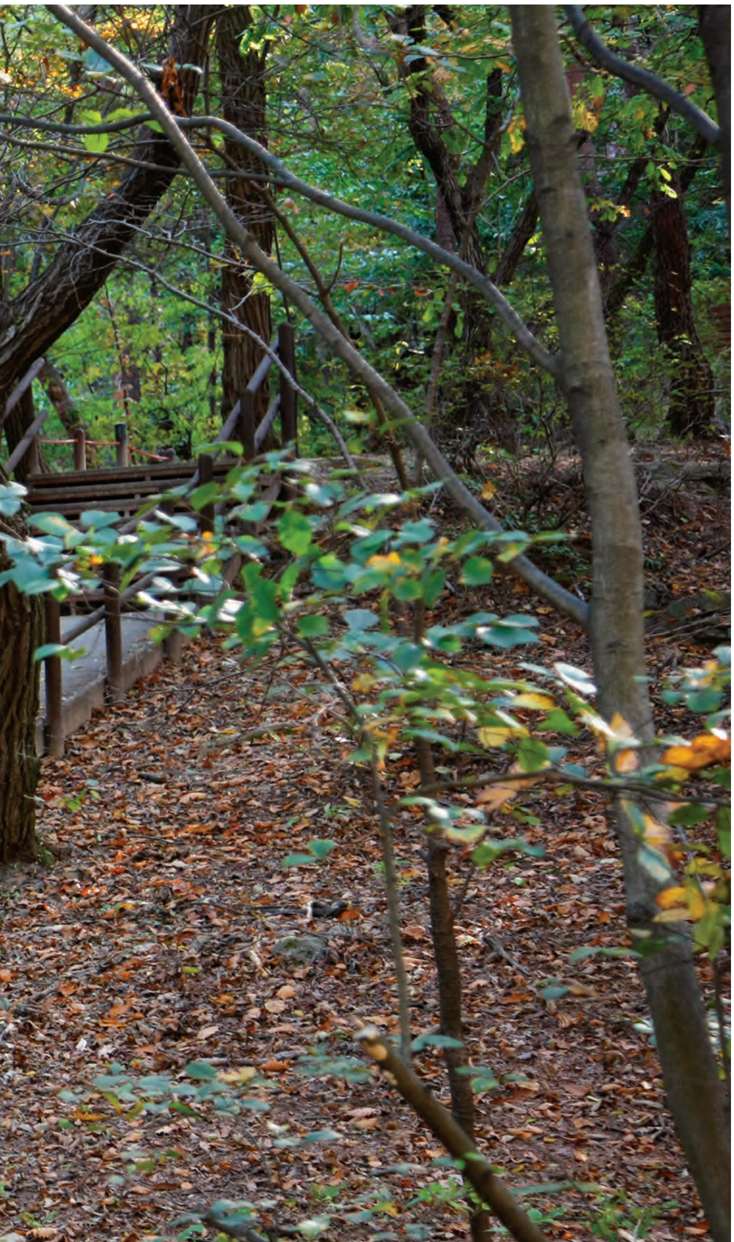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흰구름길 구간을 등산객들이 걷고 있다.

북한산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뚜렷이 달라진 것은 등산객들의 산행 방식이다. 그동안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대개 정상을 밟기 위해 수직으로만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젠 굽이굽이 산허리를 돌아 수평으로 걷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두어 달 전 개통된 북한산 둘레길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다.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의 걸음은 느긋하고 낯빛은 부드럽다. 산행이 편안해지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북한산 둘레길은 정상 등정을 위한 등산로가 아니다. 산 중턱과 산자락을 굽이굽이 에돌아가는 수평의 산책로다. 자기 동네의 앞산이나 뒷산을 산책하는 것처럼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길도 흙길, 돌길, 바윗길, 콘크리트길, 아스팔트길, 낙엽길, 나무데크길 등이 번갈아 나타난다. 때로는 작은 개울도 건너고, 가끔씩은 비탈진 산길을 오르내리기도 한다. 도심의 빼곡한 빌딩 숲이 조망되는 천연전망대도 들르게 되고, 북한산 연봉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능선길을 지나기도 한다.



하지만 시종일관 산중의 숲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북한산 둘레길 전체 구간 중 약 40퍼센트는 북한산국립공원의 바깥 지역을 통과한다. 때로는 주택가를 가로지르기도 하고, 어느 구간에서는 지루한 찻길을 따라가기도 한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야 하는 비탈길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 절로 나오는 평지길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길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길의 형태와 느낌이 소나기를 뿌린 뒤의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한다.

북한산과 도봉산을 합친 북한산국립공원의 둘레길은 총 70킬로미터다. 하지만 현재는 북한산 구간에 속하는 44킬로미터만 개통됐다. 도봉산 구간 26킬로미터는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정식 개통된 북한산 구간 둘레길만 해도 이수(里數)로는 무려 1백10여 리에 달한다. 짧지 않은 그 길을 한 번에 다 걷기는 쉽지 않다. 전문 산악인들은 하루 만에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이 한꺼번에 전 구간을 걸으려면 적어도 이틀 이상의 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무리하지 않고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다.

북한산 둘레길 40%는 북한산국립공원 바깥 지역 통과

북한산 둘레길은 즐겁고 편하게 걷는 길이다. 굳이 제1구간인 소나무숲길부터 시작해 마지막 구간인 우이령길에서 끝낼 필요도 이유도 없다. 찾아가기 쉽거나 먼저 마음이 끌리는 구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길은 혼자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뚜렷하고 표시물도 많다. 곳곳마다 이정표, 안내판, 상세지도가 설치돼 있고, 모두 9개소의 전망대와 35개소의 쉼터도 마련돼 있다.

북한산 둘레길은 총 1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소나무숲길을 출발해 시계 방향으로 걸으면 순례길, 흰구름길, 솔샘길, 명상길, 평창마을길, 옛성길, 구름정원길, 마실길, 내시묘역길, 효자길, 충의길 등을 두루 거치게 된다.

충의길의 종점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소나무숲길의 시점인 강북구 우이동 사이에는 우이령길 구간이 있다. 북한산 둘레길 구간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우이령길은 미리 예약해야만 걸을 수 있다. 우이령길이 6.8킬로미터나 되는 반면, 가장 짧은 마실길은 1.5킬로미터에 불과해 30~40분이면 걸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구간은 2~4킬로미터쯤 된다. 쉬엄쉬엄 걸어도 한두 시간이면 완주할 만한 거리다.

북한산 둘레길은 한 번에 두세 구간씩만 걷는 것이 적당하



순례길 구간의 작은 계곡에 놓인 섶다리.

다.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면 한 구간씩 차근차근 걸어보는 것도 좋다. 모든 구간이 저마다 독특한 매력과 풍경을 지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게 마련이다. 그래도 특히 인상적인 몇 곳을 꼽는다면 소나무숲길, 순례길, 명상길, 평창마을길, 옛성길, 구름정원길 등이 꼭 한번 걸어볼 만하다.

소나무숲길에는 이름 그대로 소나무가 많다. 길을 걷는 동안 그윽한 솔향기가 끊이질 않는다. 도중에 왕릉처럼 규모가 큰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의 묘소와 시원한 물맛이 일품인 만고강산약수터도 지난다. 초입에서는 북한산에서 가장 큰 계곡을 따라 서늘한 물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다. 이 구간은 강북구 우이동의 우이령길 입구에서 솔밭근린공원까지 2.9킬로미터가량 이어진다.

애국지사·이준 열사 묘소가 있는 '순례길'

소나무숲길이 끝나면 곧장 순례길로 접어든다. 이 길 주변에는 국립 4·19묘지와 김창숙, 양일동, 서상일 등의 애국지사, 그리고 헤이그 밀사사건의 주역인 이준 열사의 묘소가 있어서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 또한 작은 계곡에는 솔가지를 엮어 만든 섶다리가 놓여 있어서 시골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순례길의 종점에서 시작되는 흰구름길은 전망이 탁월한 구름전망대를 거쳐간다. 높이 12미터의 이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서면 북한산과 도봉산의 암봉들뿐 아니라 강북구와 도봉구의 시가지, 그리고 멀리 수락산과 불암산 등의 산자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물이 맑고 수량도 제법 풍부해서 조선시대 궁궐의 나인과 무수리들이 놀러와 빨래했다는 빨래골도 지나게 된다.

성북구 정릉동 청수장과 종로구 평창동의 형제봉 입구를 잇는 명상길은 시점과 종점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제법 가파르다. 북한산 둘레길 가운데 기중 어려운 코스다.

하지만 숲길의 운치가 아주 그윽한 데다 이따금 만나는 작은 계곡과 폭포의 맑은 계류가 산행의 수고로움을 말끔히 씻어준다. 길의 중간쯤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3개의 산책로가 개방된 북악하늘길(3.94킬로미터)과 연결된다.

명상길을 지나면 곧바로 평창마을길에 들어선다. 서울의 부촌(富村) 중 하나이자 문화마을인 평창동의 골목길을 따라 가기도 하고, 바위 능선길과 솔숲을 지나기도 한다. 5킬로미터나 되는 구간이지만, 길의 풍정이 다채롭고 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서 지루하지는 않다.

평창마을이 끝나면 옛성길이 시작된다. 평창동의 탕춘대성 암문(暗門) 입구에서 은평구 불광동의 불광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탕춘대성은 한양의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총길이 4킬로미터쯤 되는 옛 성이다.

인왕산 동북쪽에서 시작해 북쪽을 향해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모래내를 지나 북한산 서남쪽의 비봉 아래까지 연결됐다고 한다. 평창동의 탕춘대성 입구에서 가파른 숲길을 올



흰구름길 빨래골 부근의 나무계단을 오르는 탐방객.

라서면 어른 키보다도 약간 더 높은 암문을 통과한다. 제법 형태가 온전한 옛 성문이다. 암문을 지나면 한동안 조붓한 솔숲길과 전망 좋은 능선길을 번갈아 지난다.

능선길에서는 수리봉(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문수봉, 보현봉 등 북한산 서남부지역의 암봉들이 고스란히 시야에 들어온다. 산속에 들어 있으면서도 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구름 위를 산책하는 기분 만끽하는 '구름정원길'

구름정원길은 북한산 둘레길에서 가장 전망 좋은 구간이다. 구름정원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름 위를 거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나무데크 탐방로가 설치돼 있다.

수리봉 아래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형태의 소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진 풍광은 한 폭의 전통 산수화처럼 아름답다. 게다가 하늘과 맞닿은 듯한 이 길에서는 은평구 불광동 일대 주택가와 아파트단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접한 시가지가 딴 세상으로 여겨질 만큼 길의 운치가 깊고 그윽해서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구간이다.

북한산 둘레길을 한번 걷고 나면 문득 '서울 사람인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든지 기대거나 안길 수 있는 어머니를 바로 옆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든든하고 편안하다. 그래서 북한산 둘레길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걸음을 좀체 멈추기 어려워진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북한산 둘레길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상세한 정보는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북한산 둘레길 탐방단, 탐방센터에서 구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 지도를 미리 프린트하거나 구입해 챙겨가면 편리하다.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는 둘레길 안내 지도의 PDF 파일이 올려져 있다.

열량이 높은 간식거리와 음료수 등은 많이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 주택가와 상가지구를 지나는 구간이 종종 있어서 식사하거나 필요한 간식거리를 구입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북한산은 바위가 많으므로 운동화나 트레킹화보다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경등산화를 신고 걷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 비 오는 날에는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은 주말과 휴일마다 적지 않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일에 걷는 것이 좋다.

북한산 둘레길의 대부분 구간은 지하철과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편이 잘 연계돼 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가용을 갖고 가면 나중에 출발지로 되돌아가서 차를 찾는 불편함과 만만치 않은 주차비를 감수해야 한다.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 bukhan.knps.or.kr
북한산 둘레길 탐방단 ☎ 02-900-8085
탐방센터 (우이 ☎ 02-998-8365, 교현 ☎ 031-855-6559)



"가문의 역사 '족보' 전자책으로 보세요"

국내 최초 인제대 디지털 족보도서관 개관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백인제기념도서관의 자료검색대. 언양 김씨 32세손인 김석조 씨가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은 '디지털 족보(族譜)'다.

김 씨는 "옛날 족보를 어떻게 전자책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진짜 족보처럼 페이지를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게 신기하다"며 "우리 문중의 족보도 이 도서관에 기증해 대대손손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했다.

족보란 '한 종족의 계통을 시조로부터 아버지 계통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가문의 역사책'이다.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디지털 족보도서관(이하 족보도서관)에는 족보 2천4백여 권이 소장돼 있다. 그중 1666년 우암 송시열이 서문을 작성한 은진 송씨(恩津宋氏) 족보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도 다수 있다. 또한 씨족, 종파, 직계 중심 기록 여부에 따라 족보(族譜), 종보(宗譜), 세보(世譜), 파보(派譜) 등 다양한 족보 종류가 소장돼 있다.

족보도서관은 족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면 국내외 어디서나 족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의 디지털 족보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먼저 개관 당시 1차로 28개 성씨 족보 3백여 권을 디지털 족보로 만들어 도서관 자료검색대와 족보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어 8, 9월에 2백36권의 디지털 족보를 공개했으며 향후 소장 족보를 꾸준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인제대 측은 2007년부터 미국 유타계보협회(The Genealogical Society of Utah)와 기술협약을 체결해 족보를 디지털 이미지화하고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족보를 디지털화하려면 자료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이미지화하고 이를 다시 전자책 형태로 재가공해야 한다.

디지털 이미지화 ·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재 국내 몇몇 족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족보 원문을 볼 수 있지만, 족보도서관이 구축한 디지털 족보는 진짜 책을 넘겨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구현했고 확대와 축소가 편해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게 특징이다. 족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디지털 족보를 볼 수 있다.

박재섭 백인제기념도서관장은 "앞으로 족보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족보도서관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족보를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일시 기탁할 경우 디지털 작업을 무료로 해준다. 디지털 작업 후 족보 시디롬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원본 족보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디지털 족보도서관 ☎ 055-320-3033 jokbo.inje.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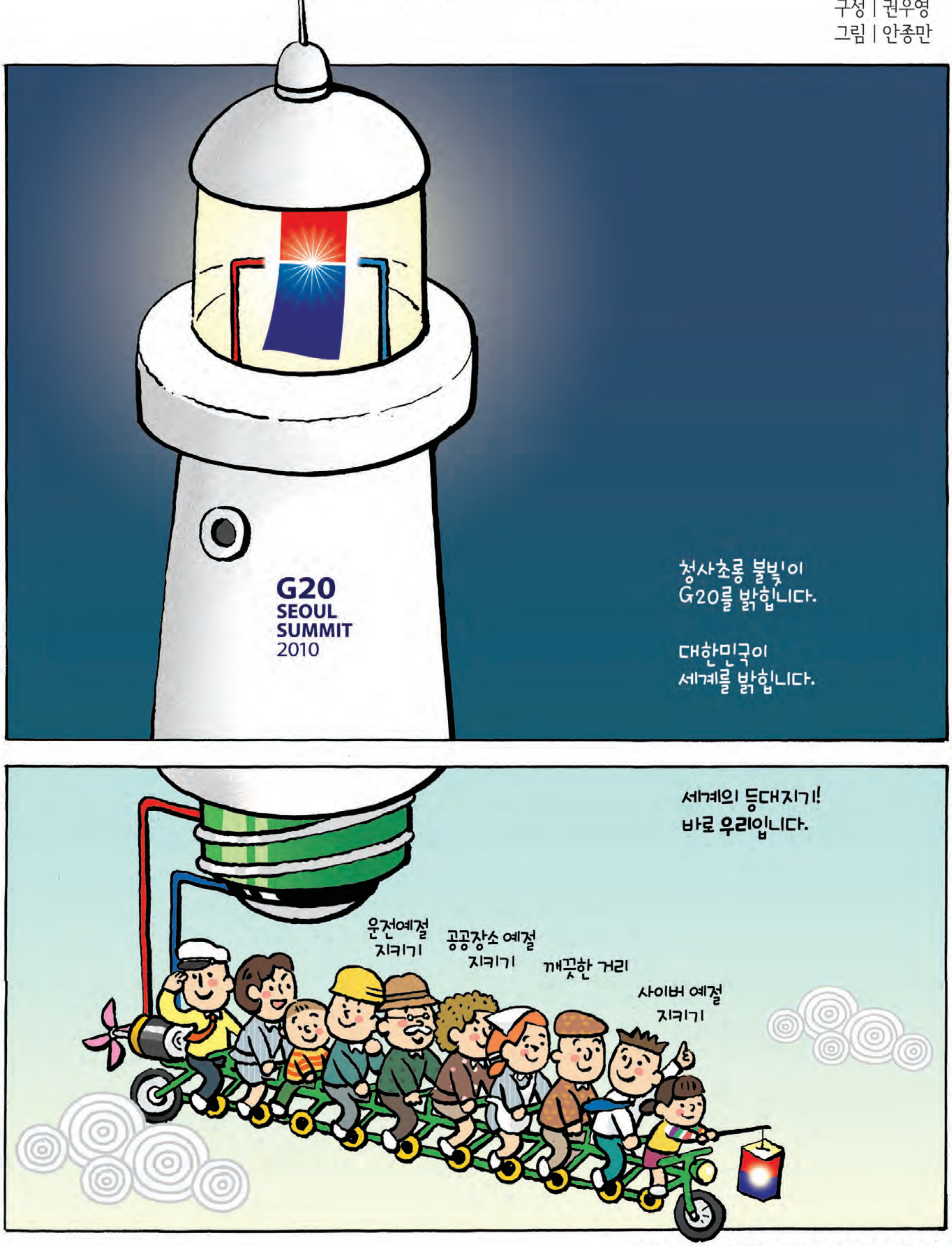


인제대 디지털 족보도서관

▲인제대 디지털 족보도서관은 10월 12일 현재 경남 김해지역 문중 족보를 중심으로 5백여 권의 족보를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가문의 역사책'인 디지털 족보는 젊은 층에게도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다.

세계의 등대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만화로 보는 **나눔·사랑·용서**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천국에서 만난 바보 김수환 추기경〉

비타컴 글·그림 / 아테나 펴냄 · 각 9천원

지난해와 올해 봄 우리나라 종교계의 큰 별이 졌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스님이다. 두 사람은 종교는 달랐지만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 개원 법회에 법정스님의 요청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법정스님은 〈평화신문〉에 성탄 메시지를 기고했다. 또 1년 뒤엔 명동성당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라는 특별강연을 갖기도 했다. 이처럼 종교의 벽을 넘나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스님은 살아생전 이웃을 보듬으며 나눔문화에 앞장서왔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 황진이, 홍길동, 김연아 등 인물 중심 교양만화를 그려온 비타컴은 두 사람의 삶을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천국에서 만난 바보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으로 펴냈다.

지난 3월 향년 78세(법랍 54세)의 나이로 입적한 법정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다. '육신은 헌 옷, 항상 깨어 있는 채로 정진하라'고 말했던 법정스님은 수의 한 벌 맞추지 않은 채 이승을 떠났다.

1955년 출가한 법정스님은 1976년 첫 산문집이자 그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무소유〉를 출간한 이후 20권이 넘는 책을 발간했다. 인세는 아이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고스란히 기부했다.

이런 그의 나눔 정신이 알려지자 1994년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라는 시민모임이 결성됐다. 봉사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으며, 그가 지속해오던 장학사업 규모도 커졌다.

법정스님은 사회와 인류에 봉사하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 종교 간의 벽도 허물었다.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해 선종했을 때 추모사에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며 "그의 존재로써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수환 추기경·법정스님 이웃 보듬으며 나눔문화 앞장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 행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은 말로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은 대한민국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평생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다간 그의 젊은 시절은 신부로서의 자질을 고민하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방황 끝에 29세 나이로 사제서품을 받고 성직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사회의 부조리에 당당히 맞섰다.

1968년 노동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지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에도 1인 독재체제 반대 등을 주장했다. 사형제도 폐지, 위안부 인권회복 등 약자를 위해 그가 목숨을 걸고 나섰던 일들은 당연한 일상이었다.

조금 느리지만 배려할 줄 아는 '바보'가 되고 싶었던 김수환 추기경, 검소하고 청빈한 무소유 실천가로 산 법정스님. 이들의 일생을 다룬 만화 이야기를 통해 과연 우리네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사랑이란…

글과 그림 · 최영순



누구도 받기만 할 뿐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받으려는 사람보다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 슈바이처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를 조각하고 설치한다면…

현대미술 기획전 〈세계미술의 진주, 동아시아展〉



인도네시아 티타루비의 설치작품 '비단 군대'(2007)



말레이시아 치키옹의 설치작품 '비밀정원 2010'(2010)



태국 마니뜨의 사진작품 '평범한 혹은 비범한 시리즈-지구'(2006)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이 11월 4일부터 동아시아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세계미술의 진주, 동아시아展〉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첨단 현대미술과 동아시아 미학의 단면을 소개한다는 의미 외에도, 한국사회에서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다문화'라는 문화코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전시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구미(歐美) 위주의 미술사 속에서도 흙 속의 진주 같은 개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들이다. 또 출신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공부하거나 창작활동을 한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다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저마다 흥미로운 작품들을 제작해왔다. 말레이시아 셔먼 옹의 영상 '가뭄 속의 홍수'와 치키옹의 설치작품 '비밀정원 2010', 인도네시아 티타루비의 설치작품 '비단 군대', 우리나라 김수자의 영상 '보따리 트럭-이민자들' 등 전시 작품 70여 점도 하나같이 다문화적 혹은 노마드(Nomad)적 정서를 담고 있다.

서울 예술의전당 감윤조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회화부터 조각, 설치, 영상까지 전 장르를 망라해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료지만 관람료가 저렴하고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과 다문화가족에겐 무료 관람 혜택을 주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12월 5일까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3, 4전시실 **관람료** 일반 2천원, 학생 및 청소년 1천원, 경로우대증 소지자 1천원, 5세 이상 미취학아동 무료,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무료
문의 02-580-1600 www.sac.or.kr

● 연극 〈죄와 벌-죄를 고백함〉

명품 극단이 러시아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에서 몇 개의 에피소드를 뽑아내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고전을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이다.

일시 11월 17~28일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일반 2만5천원, 청소년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40퍼센트 할인
문의 02-3673-2003, 010-7345-2040 www.ntok.go.kr

●● 변진섭의 〈미니 콘서트〉

가수 변진섭이 자신의 히트곡인 '새들처럼' '숙녀에게' '희망사항' 등을 들려주며 그 시절의 추억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는 콘서트.

일시 11월 16일 오전 11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메인오디토리움(대강당)
관람료 전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5955 www.theateryong.or.kr

●



●●




G20 SEOUL SUMMIT 2010
위기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
Census Day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STATISTICS KOREA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세요
[11월 1일~ 11월 15일]
Census Day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기간 : 10월 22일 ~ 11월 15일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10월 22일 ~ 10월 31일), 방문 면접 조사(11월 1일 ~ 11월 15일)
● 조사대상 :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 인터넷조사참여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www.census.go.kr